



時 計 塔

SIGETOP



2013년 1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0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金 一 泳
편집인: 金 炳 哲

편집위원: 徐 亮 李 元 澤
徐 仁 錫

자문위원: 盧 鎔 冕 李 熙 景
許 善 行

2013년 새해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이제 2013년 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모든 일들이 형
통하고 또 더욱 보람 있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2 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해이었지요. 어려운 중
에도 늘 감사하며 사는 한해가 되시길 믿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나 여러 동문들을 떠나보내고 시계탑에
도 추모사가 점점 많아 지는 것을 보는데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또한 100년 만의 Hurricane Sandy로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만나기를 힘쓰시어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웠던 중에도 한창규 동문이 함준의학상을 받고 석창호 동문이 자랑스
러운 서울의대인상을 받게 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두 분께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는 Orlando의 컨벤션 뿐만 아니라 Caribbean Cruise에도 많이 참석
하시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Arizona의 Grand Circle 여행을
customize 하여 가 보기로 해 보았습니다.

새로이 단장된 Pacific Palms Hotel에서 2박 3일간의 학술대회가 3월 14일부
터 있겠고 알찬 CME 뿐 아니라, 의욕적으로 더욱 새로워진 Non CME 프로
그램을 준비하여 더욱 재미있는 컨벤션이 되도록 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3월 17일에는 Post Convention Tour가 있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재미있는 쇼를 관람한 후 그랜드 캐년을 지나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성지로 여기며 서부극 영화 촬영에 단골로 사용 된 Monument Valley,
Arches Park, Petrified Forest Park 등 사진 작품 찍는 사람들의 mecca인 곳들
을 방문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서 가기가 쉽지 않
은 곳으로 가게 되니 모쪼록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하시어 동기별로 또 선후
배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만날수록 반갑고 또 보고 싶은 아름다운 동
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과 사업이 늘
잘되시길 빌며, 새해의 구호는 만나기를 힘쓰는 동창회가 됩시다.

동창회장 김 일 영 드림

SNUCMAA 30th

Annual Convention and Scientific Meeting

제30차 연례학술대회를 로스앤젤레스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문들만을 위한 맞춤형 Post Convention Tour도 마련하였으니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시어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March 14(Thur) ~ March 17 (Sun), 2013

PACIFIC PALMS HOTEL

1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www.pacificpalms.com

제30차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THE 30TH ANNUAL CONVENTION PROGRAM

GENERAL PROGRAM

Thursday- March 14, 2013

4:00pm-5:30pm Delegate meeting
6:00pm-6:30pm Class reunion
6:30pm-11:00pm Grand Banquet

Friday- March 15, 2013

6:30am-12:15pm CME, Non CME and Continental Breakfast
12 Noon- 6:00pm Golf Outing
12 Noon -2:00pm Class reunion at Rowland Height
2:00pm-5:00pm Non CME
6:30pm-11:00pm Grand Banquet

Saturday-March 16,2013

6:30am-12:15pm. CME, Non CME and Continental Breakfast
12 Noon-6:00pm Golf Outing
12 Noon-2:00pm Class reunion at Rowland Height
2:00pm-5:00pm Non CME
6:30pm-11:00pm Grand Banquet

Sunday-March 17,2013

8:00am Post Convention Tour Departure

SCIENTIFIC SESSION

March 15 2013, Friday

6:30-7:00 Sign-in registration and Continental breakfast
7:00-7:15 Opening Address
Il Young Kim(71), M.D., FACC, FACCP
President of SNUCMAA-NA
7:15-8:00 Development of olfactory neuroepithelial and postmortem brain approaches for neuropsychiatric research
Chang-Gyu Hahn(81), M.D.
Associate Professor, Dep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8:00-8:30 Social Adaptation toward changing demographic picture
Kwang-Sun Lee(65), M.D.
George M. Eisenberg Professor of Pediatrics, Director of Neonatology University of Chicago
8:30-9:00 SNU Hospital; Life time Global medical education center and its educational missions
Hee-Won Jung(61), M.D., Ph.D.
Professor, Dept of Neurosurgery, SNUCM. President and CEO SNU Hospital
9:00-9:30 Dietary antioxidant capacity in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Won O. Song(71), Ph.D. MPH, RD
Professor of Human Nutrition Dep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9:30-9:45 Coffee break and Kidney break
9:45-10:15 Role of SNU Medical Education as a Global Pioneer
Dahee Kang(87), M.D. Ph.D.
Professor and Dean, SNU Medicine and College
10:15-10:45 Evolution of Anesthesiology
Yoogoo Kang(71), M.D.
Professor and Vice Chair Dept. of Anesthesi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10:45-11:15 Potential targeted therapy of aggressive breast cancer and estrogen receptor B(Beta)
Young Choi(66), M.D.
Professor of Pathology and Lab Medicine, Yale School of Medicine
11:15-11:45 Paradox of Parathyroid Hormone: Implications for Ageing Bone and Arthritis
Francis Y. Lee(86), M.D.
Professor and Vice Chair, Dept. Of Orthopedic Surgery, Columbia University

11:45-12:15 Pathophys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of Allergic Rhinitis
Yang-Gi Min(71), M.D. Ph.D.
Professor Emeritus, Dept. of Otorhinolaryngology

March 16 2013, Saturday

6:30-7:00 Sign-in registration and Continental breakfast
7:00-7:30 Trans Catheter Aortic valve replacement
Kee C. Lee(72), M.D.
Associate Professor of Surgery, West Virginia School of Medicine
7:30-8:00 Management of Early Thyroid Cancer
Kwang Hyun Kim(72), M.D.
Professor, Dept. of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SNUMC
8:00-8:30 Endocrine Surgery
Louis C. Lee, M.D.
Attending Surgeon, Surgical Associates of Monterey Bay, CA
8:30-9:00 Prenatal Screening for Fragile X Syndrome among Korean women
Do-Yeong Hwang(83), M.D. Ph.D.
Director, Hamchoon Institute of Fertility and Genetic
9:00-9:15 Coffee break and Kidney break
9:15-10:00 The role of antiviral therapy in patients with HBV associ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Hie-Won L. Hann(61), M.D.
Professor of Medicine. Director of Liver Disease Prevention Center, Thomas Jefferson University
10:00-10:30 Update in Aneurysmal treatment
In Sup Choi(72), M.D., FACR
Professor of Radiology, Tuft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0:30-11:00 Bariatric Surgery for Severe Obesity
Benjamin Kim, M.D. FACS
Clinic Director, Dept. of Surgery Kaiser Permanente West Los Angeles Medical Center
11:00-11:30 Laminoplasty in Cervical Myelopathy
Yung-Tae Kim(71), M.D. Ph.D.
Professor Emeritus, Dept.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11:30-12:15 Epigenetics: Post Human Genome Project Paradigm
Sechin Cho(71), M.D. FAAP, FACMG
Professor Emeritus. Dept. of Pediatrics Univ. of Kansas School of Medicine-Wichita

NON CME PROGRAM

3월 15일 (금)

7:00 am 노천기 노년기 부부생활
8:00 am Brian Choi 컴퓨터 사용법
9:00 am 한혜원 Anyone can enjoy opera
10:00am 한석수 나의 투병기
11:00am 이덕승 웃음동산
11:30pm 썸바 (춤 연습)
2:00 pm 주명식 국선도 & 단전호흡
3:00 pm 이원택/김영애 수필과 조사쓰기
4:00 pm 조세진 Following Van Gogh's footprint in France

3월 16일 (토)

7:00 am 배성호 치매와 영성: 치매를 방지하려면
8:00 am 최광휘 Organic food & Wine
9:00 am 홍성진 의료봉사활동
10:00am 나두섭 사진 잘 찍는 방법
11:00am 썸바 (춤 연습)
2:00 pm 손영진 평범한 은퇴생활
3:00 pm 이홍표 재미있는 여행
4:00 pm Chris Cho 스마트폰 사용법

SNUCMAA Class Representative 2012-2013

Class Name	Phone Number	Office phone	Cell phone	Fax Number	E-Mail Address
55 Kim, Ung Sik	김웅식 (614) 889-8873				ungskim@yahoo.com
57 Chung, Edward K.	정구영 (407) 876-9494		(407) 952-2288	(407) 876-9494	edwardchungmd@yahoo.com
58 Lee, Manuel Man-Tack	이만택 (215) 968-3897		(215) 937-7519		mmtlee@hotmail.com
59 Choi, Jong Jin	최종진 (631) 979-6579	(631) 862-3540			choi007@optonline.net
60 Chon, Hikon	전희근 (215) 635-6030		(267) 231-8980		hikonchon@gmail.com
61 Kim, Yeongcheol	김영철 (201) 871-4745		(201) 280-4965		ykim4745@yahoo.com
62 Ryu, Chun kee	여천기 (714) 544-0559	(714) 543-4447	(714) 357-0559	(714) 543-4488	ckryumd@yahoo.com
63 Han, Ki Hyun	한기현 (973) 256-4041		(973) 818-0515		kihan00@yahoo.com
64 Joo, Eui Don	주의돈 (908) 464-7731	(718) 667-2445	(908) 472-4999	(718) 667-2614	Euidonjoo@gmail.com
65 Choung, Kilwha	정길화 (614) 604-7740		(614) 314-6078		kchoung314@gmail.com
66 Choi, Soon Chae	최순채 (908) 561-9240	(908) 561-2122	(908) 304-2922	(908)561-9240	soonchoi@aol.com
67 Choi, Moo Woong	최무웅 (717) 696-4420	(717) 459-3460	(570) 459-3459		edwardchoi125@yahoo.com
68 Seo, Youn Seok	서윤석 (703) 753-1798		(419) 234-4154		younseokseo2004@yahoo.com
69 Uhm, Kyudong	엄규동 (973) 777-5299	(973) 471-0981	(201) 914-7844	(973) 471-5818	kduhm@yahoo.com
70 Yin, Chung Kil	인정길 (740) 548-2088	(614) 234-8062	(614) 226-1156	(740) 548-2088	yin500@hotmail.com
71 Kim, Changku Kurtis	김창구 (269) 687-9257	(574) 234-4176		(269) 687-8840	ckurtiskim@hotmail.com
72 Suk, Chang Ho	석창호 (516) 466-0399	(718) 461-6212	(917) 232-3500	(718) 539-1238	changhsuk@gmail.com
73 Seo, In Suk	서인석 (201) 871-9191	(718) 250-8225	(551) 587-3212	(718) 250-6760	ins9002@gmail.com
75 Kim, Wun Jung	김원정 (734) 856-1455	(412) 802-6858	(734) 717-1953	(412) 246-5140	wjkim@upmc.edu
79 Kim, Chee Gap	김차갑 (201) 750-0897	(201) 541-1111	(201) 407-9644	(201) 541-0777	cheegap@gmail.com
83 Chun, Won Il	전원일 (858) 587-7974		(917) 923-6018		wichusa@hotmail.com, wichuny@gmail.com
86 Lee, Francis Y.	이영인 (201) 569-1895	(212) 305-3293	(201) 248-1630		F1127@columbia.edu, nybonetumor@gmail.com
90 Sohn, Jeong-hyun	손정현 (502) 329-2262		(443) 542-7042		eyedrsohn@yahoo.com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이규용 선배님의 96세 생신을 축하

뉴욕 Long Island 동쪽에 있는 Southampton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창회 2대 회장 이규용(41) 선배님께서 지난 11월 14일 96세를 맞이하셨다. 선배님은 지난 6월 27일에 있는 대뉴욕지구 이규용배 골프토너먼트에 나오셨고, 11월 9일에 있는 대뉴욕지구 연말파티 합춘의 밤에도 참석하셨다. 선배님께서 계속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용면)

자랑스런 서울의대인에 석창호(72) 동문 선정



서울대학교와 모교동창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2회 동창의 날 행사가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26회, 72년 졸업동기들이 주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모교 교정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 올해의 '자랑스런 서울의대인' 으로 박재형(국내, 가천대학교 길병원 영상의학과교수) 동문과 석창호(국외, 뉴욕 소화기 내과) 동문이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석창호 동문은 뉴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소화기내과를 개업하며 미주 동문들을 위한 봉사자로, 동포사회의 지도자로서 높은 신망을 얻어왔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한창규(81) 동문 제16회 합춘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한창규(81) 동문이 2012년도 제16회 합춘학술상 중 합춘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012년 12월 18일 합춘 송년의 밤 행사에서 수상했다.

수상논문 제목은 '정신질환 연구를 위한 후각신경세포와 사후뇌 연구방식의 개발' 이다. 한 동문은 수상소감에서 미주동창회, 특히 조세진 김용일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상은 미주지역의 많은 동문들에 대한 치하이고 격려가 되어서 그 점에 더욱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모교 정준기(77, 핵의학과) 교수 제 2의 수필집 발간

2011년의 "짧은 히포크라테스를 위하여" 에 이어 2012년 최근에 "소소한 일상 속 한줄기 위안" 이라 제한 정 교수의 힐링 에세이 모음이 '도서출판 지누'에서 간행되었다.

핵의학 분야에서 국내외에 수려한 공헌으로 널리 알려진 정교수는 현재 대한 갑상선학회 회장이며 모교 의학역사문화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 남가주 지부 방문

현 서울의대 강대희(87, 예방의학) 학장을 대신해서 신찬수(87, 내분비내과 교수) 부학장이 LA를 지난 12월 13일에 방문했다. 강 학장이 3월에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방문한 두 가지 목적을 전했다.

첫째는 USC와 UCLA와 본국 의대생의 임상실습 방문을 주선하여 교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 학교의 global health program이 잘되어 있어서 이를 배우고 앞으로 교류하려는 것이다.

USC를 방문하여서는 학장과 학생담당 부학장을 만나 1년에 2명씩 상호 교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고 현재 MOU 문구를 검토중이며 3월 강대희 학장이 방문하여 MOU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모교의 책임자들이 미주동창회에 장학금 지원과 LA 현지의 도움을 원하는 만큼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고, 모교에서 오신 손님을 김성환(71), 박진국(71) 전경배(75) 동문들이 저녁을 대접하며 흐뭇한 하룻밤을 보냈다.

Green Project Corner

지난 여름 모교 후배들이 선택의학 실습을 위해 미주를 방문했습니다. 본 동창회 그린 프로젝트에서 후배 동문들을 위해 장학금을, 또한 여러 동문들께서 여러모로 실습기간동안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주동창회에 보내온 감사편지입니다.



Einstein Medical Center에서 선택의학 실습 일정에 참여했던 본과 장시원입니다. 선택실습을 미국에서 하려면 국내 실습보다 훨씬 더 많은 사항들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크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학생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시는 누려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귀한 경험이고, 더하여 미국에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 뵈기 기회가 생기면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 든 소중한 조언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선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실습 준비를 성실히 해서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주동창회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격려와 희망은 어려운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학금 외에도 미국으로 실습을 가게 된 저희들을 여러모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는 출국 직전에 Temple University로부터 실습 자리가 없다는 연락을 받아서 그 동안의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될 뻔 했다가,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다른 실습 병원을 배정받을 수 있었기에 더욱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던 상황에서 기회를 마련해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마련해주셨던 기회와 들려주신 소중한 조언들 모두 귀한 자산으로 지니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시원 드림.

지난 2012년 여름 기간 동안 미국 컬럼비아대학 병원에서 선택의학 실습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고, 더 넓은 세상에서 의학을 접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미주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주신 덕분에, 학생의 신분으로는 매우 부담되었던 뉴욕의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련 기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계탑 편집장의 신년인사

김 병 석(59) 시계탑 편집장



폭풍을 물고와 땅을 휩쓸기도 하고, 기상천외와 같은 일들이 잇달리기도 하던 한 해가 가고 미지의 새해입니다.

시계탑도 한 살을 보태어 서른 아홉살이 되었습니다. 재미 동창들도 우리들의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해온 시계탑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생활 속에 동문들과의 소식과 정담을 나누어왔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친밀감을 더 느끼고 관심도 커져 여러분의 투고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계탑에 일상에서 각자의 삶을 충분히 느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이야기들을 전함으로써 각박해지는 심성, 기계 문화에 눌려 인간성과 도덕성이 잠식되어가는 이 세기를 우리 서울의대 동창들이 바로잡아 변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희 출판위원들의 마음을 담아 시계탑 독자 여러분들의 새해를 축원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생생하게 누리시기를.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보고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9월 정기 이사회에서 이만택(58) 동문을 3년 임기 이사장으로 재선임(2015년까지) 했다. 현 이사는 김형주(공대), 남익현(경영대, 기획처장), 이석현(사화대), 안지현(인문대, 발전기금본부장), 한종철(치대, LA) 이다.

재단 모금액은 2010년 354,470불, 2011년 514,180불, 2012년 현재 719,400불이다.

의과대학 지원기금: (10만불 이상 기증으로 기금설정)

김기태-노정욱(58): 장학기금 - 50만불 약정(30만불 출현)

김의신(66): 핵의학과 학술기금 - 20만불약정 (24만불 출현)

이홍표(64): 순환기내과 연구 및 교육기금 - 30만불 약정 (10만불 출현)

익명(61): 장학기금 - (생명보험) 20만불 상당 유증

Heart Image Technology 회사는 서울대 Cardiovascular Magnetic Resonance Center (Duke-SNU joint project)에 19만불 상당의 Image Management System을 미주재단을 통하여 기증 하였다.

미주재단에 기부한 동문 및 액수 (단위 US Dollar)

최지원(61) 5,000 / 24회 동기 8,970 / 김의신(66) 240,000 / 김기태(58) 300,000 /

이성호(72) 500 / 조병선(71) 1,000 / 최지원(61) 1,000 / 이희백 (61) 10,000 / 최선

덕(61) 630 / 강세부(61) 450 / 홍건 (70) 500 / 임현재(65) 1,000 / 김은섭(59)

1,000 / 장인호(63) 300 / 박용화(58) 100 / 이운순(58) 100 / 이홍표(64) 100,000

서울대학교 미주재단(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은 미국 IRS에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등록되어 기부금은 미국 IRS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다.

사무소: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212-768-4494

새로 선임된 미주동창회 이사 명단

2010-2013: 이만택(58) 김병오(69) 엄규동(69) 광승용(71) 김유식(71) 박진국(71) 서인석(73) 박일우(77) 백승원(79) 조형기(92)

2011-2014: 손영진(62) 김태웅(63) 조영갑(70) 조세진(71) 강창홍(71) 김성환(71) 오용호(72) 고용규(73) 이원택(71) 김동훈(77)

2012-2015: 채규철(59) 이희경(61) 김택수(63) 추재욱(63) 최준희(64) 허선행(64) 최순채(66) 김홍서(69) 이성춘(70) 최광휘(76)

이러한 해외 수련의 기회는 국내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주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의 후배들에게도 계속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움의 길에 서있는 후배 의학도들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의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나래 올림

2012년 여름은 여러모로 저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본과 1학년 때부터 미국에 있는 의대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의대생들과 어깨를 견주며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선배님들을 뵈는 행운을 누렸다는 점에서도 그랬습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 학생들과 같이 실습을 하고 영어로 환자 진찰을 하고 어텐딩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는 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인 어텐딩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사로서의 삶, 미국에서 의사로 사는 삶에 대한 교훈은 한국에서 KMLE를 공부하는 지금도 전혀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좋은 여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인데 학생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 형편을 이유로 국내에서도 교외 장학금으로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저로서는 그린 프로젝트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콜롬비아 의대에서 선택의학 실습을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밑거름으로 좋은 의사가 되고 미국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선택지에 대해서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에 올림

올해 여름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로 클럭업을 다녀왔고,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실습 기간 동안 외국에서의 체험을 꿈꾸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급진적인 부담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하계연수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의대 학생들에게 할당되는 양은 극히 미미한 실정에서, 미주동창회 측의 배려는 저희 학생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클럭업 체험은 미국에 계신 선배님들과 같이 앞으로 미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도 비슷한 기회가 주어져서 미국의사 생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염태성 드림.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정낙섭(60) 동문: 지난 2012년 10월 5일 Myelodysplastic Syndrome (MDS)으로 Lecanto, Florida(Black Diamond Golf and Country Club) 자택에서 별세하였습니다. 고인은 서울의대를 60년에 졸업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인턴, 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모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도미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VA Hospital에서 내과 및 혈액종양과를 전공하고 Lima Ohio에서 개업하다가 후로리다주로 은퇴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한국 단국대학교 병원 초빙 교수로 봉직 하였습니다. 추모 예배는 10월 7일 Citrus Hills 한인 교회에서 가족과 친지 및 Citrus Hills과 Black Diamond 한인 교포들이 다수 모여 드렸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용자 여사와 David, Michael 두 아들과 손자들이 있습니다.

송영조(60)동문: 지난 2012년 10월 23일 York, Pennsylvania 따넵 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습니다. 고인은 서울의대를 60년에 졸업 모교병원에서 인턴, 내과 레지던트 1년을 킴스 플랜으로 마치고 육군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한 후 도미하여 Morgantown West Virginia에 있는 University Hospital에서 내과와 내분비학을 전공한 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개업하였고, 교회 장로로서 봉사하였습니다. 10여년 전에 이곳 Citrus Hills (Hernando), Florida로 은퇴하여 은퇴 생활을 즐기다가 지난 수년간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추모예배는 11월 27일 Citrus Hills 한인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유족으로 부인 김진숙 여사와 Mimi(음악전공)와 Suzette (정형외과 의사), 두 딸과 네명가 손자가 있습니다.

- 두 동문의 추모행사로서 오는 2월 27일 60년 동기들이 이곳 Citrus Hills Sky View Golf Course에서 골프를 치고 Black Diamond CC에서 dinner를 갖는 행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김정현(65)동문: 오랫동안 Dayton과 Ohio Lima에서 정신과를 개업하셨던 김동문께서 지난 2012년 7월 4일 Atlanta Georgia에서 지병으로 타계하셨습니다. 슬하에 3남매가 있습니다.

한민원(68)동문: 1941년 11월 16일에 출생하여 2012년 10월 13일 중국여행 중 상해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버팔로에서 활동하시다가 은퇴 후 Nevada 주의 Henderson 에서 사셨습니다.

김재욱(69)동문: 캘리포니아에서 마취의로 활동하시던 김동문께서 지난해 6월 10일 타계하셨습니다.

업줍줍

서 윤 석(68, 오하이오)

스쳐가는 바람처럼
인사도 없이
서둘러 떠나셨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반짝이던 당신들의 별이
우리의 가슴 위에 떨어졌습니다

당신들의 얼굴,
그 목소리,
당신들의 편지가
아직도 살아 윤희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잊혀지는 얼굴이 되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줌 먼지로
바람에 날려버려도
같이 나는 귀한 추억들은
천광년 떨어진 별나라로 옮겨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려도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잊혀지는 얼굴이 되지 맙시다

태양은
당신들의 향기를 바다에 뿌리고
갑갑한 밤이 오면
찬란한 당신들의 별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백기(58), 정낙섭(60), 김정현(65), 선배님들과 한민원(68) 학형의 명복을 빌면서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12월 19일 저녁 6시에 Flushing New York에 있는 송산식당에서 금년 마지막 시계탑 편집을 위한 출판위원 모임이 있었다. 들어온 원고들의 편집을 마치고 지난 해를 회고하며 새로 맛을 1년을 바라보게 된다. 시계탑 창간인으로 39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편집모임에 참석하신 노용면 선배님 내외분 회고담을 모두 경청했다. 다시한번 시계탑이 서울의대 동창회의 거름임에 동의했다. 이번 분기에도 원고가 불충분했으며 동창들의 관심과 협조를 모을 수 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나 특별한 아이디어를 찾지 못하였다. - 출판위원장 김병석(59)

신의 꿈수

김 명 원(68, 남가주)

노홍규가 그렇게 어이없게 가 버린 것은 전적으로 운명의 신의 꿈수였다. 꼬박 꼬박 심장내과 진찰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도 하며 대동맥류의 경과를 지켜보아 왔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봄에 Femur Neck Fracture와 그 후 또 한 번의 Fracture, 거기에서 RSD까지 겹쳐서 Pain Management와 재활 치료에 정신이 없었던 사이에 대동맥류가 파열 된 것이었다.

신은 모두걸이를 거는 척 하다가 업어치기로 간단히 한판승을 거둔 것이다.

RSD의 엄청난 통증도 가지고 쌍지팡이나마 짚고 다니게 됐고 이전 운전석에 엉덩이를 비집고 넣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치유에 모두가 희망적인 무드에 젖어 있었다.

그와 헤어지면서 다음에 만날 때 함께 야외 스케치를 가려면 부지런히 운동을 하라고 走馬 加鞭 한 것이 심장에 무리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노홍규는 퇴임한 후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골절로 휠체어에 갇힌 앓은뱅이가 되어서도 그림을 그렸다. 그의 부친이 87세에 돌아 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2030년 까지는 살기를 기대 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며 계룡산 자락에 아담한 아뜨리어를 들일 땅도 샀다.

나도 3년 전에 그림을 다시 시작 한 참이라 2030년까지 2000점을 그리겠노라고 선언했다. 내년엔 후배 심완섭과 함께 3인전을 열기로 뜻을 모은 것이 바로 지난 달 만났을 때였다.

매일 그리던 그림을 그가 가고 나서부터는 한 점도 못 그렸다.

요새는 쟁하는 아침 햇살이 어쩐지 낯설을 적어 있다.

주위에서 떠드는 웃음소리가 갑자기 멀어져 버릴 때도 있다.

때만 되면 어김없이 배가 고파지고 맛있게 먹다가도 이렇게 게걸스럽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적도 있다.

몸에 좋다는 것 다 찾아 먹으며 혼자 100살까지 살면 무얼 하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가 버리면.

먼저 가면 울어 줄 사람이라도 있지...

이러다가 올 일 년치 목표량을 다 그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가 수업을 기른 후 처음으로 대전역에 마중 나왔을 때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 처가 "저기 웬 산신령 같은 사람이 우릴 보고 희죽 거리네" 해서 보니 바로 노홍규였다.

니코틴에 찢은 두 줄 노란 코 밑 수염만 아니었다더라면 분명 공중 부양하는 신선으로 착각했었을 것이다.

"자네 영정일세. 농하며 그려준 초상화.



우현 (于軒), 노홍규 영전에 바침

"노홍규 사망" 이라니 이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자네를 보고 온 지가 채 보름도 안 되었는데. 양 손에 지팡이를 짚고 마중을 나왔던 자네. 그리고 며칠 전 이메일엔 차 운전을 시도 했다고. "흐이맹 같은 기 보인다" 더니. 밑도 끝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정녕 갔단 말인가. "자네 영정(影幀)일세" 농하며 그려다 준 초상화가 진담이 될 줄이야.

"우현!" 반향(反響) 좋던 자네 이름을 이젠 불러 봐도 적막하기 짝이 없네그려. 아, 우린 벌써 그런 나이가 됐는가.

홀짝 떠나가 버려도 이렇게 속수무책인 나이가 돼 버렸는가. 느닷없이 앓아가 버려도 할 말이 없는 나이가 돼 버렸단 말인가.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어떻게 혼자 견뎠을까 그 공포와 외로움, 마지막 체념의 순간엔 무슨 상념(想念)이 스쳤을까. 마지막 한마디도 못하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이제는 말이 없는 자네 하늘을 나는 큰 새가 되어 굽어보는가. 쓸쓸한 가을 숲을 홀로 방황하는 나 나의 오열(嗚咽)을 듣는가.

아름다운 사람. 세상은 자네만큼 아름답지 못했네. 허나 세상은 살만 하다네. 산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는 법.

잘 가시게. 가서 편히 쉬시게. 자네처럼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시게. 어여 가시게. 여길랑 돌아보지 말고 꺾꺾 웃으며 가시게.

于(갈 우), 軒(꺾꺾 웃을 현)은 10년 전에 필자가 지어준 노홍규의 號 11월 20일 2012 타계.

62년 동기들의 뜻깊은 50주년 만남

김명자(Mrs. 오태요 62)

2012년 10월 17일 10시 의대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있었다. 미국에서 온 많은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고, 회장과 총무님의 인사에 이어, 학교를 보여주는 DVD를 보았고 교가의 합창도 있었다. 병원을 방문하고 5층에 들려 밖으로 나가 특별한 야외 정원과 그 뒤 너머로 보이는 비원의 정원과 건물들은 가을 경치와 더불어 매우 아름다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낼 수 있었는지 그들의 창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녁때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찬란한 저녁파티가 있었다. 한국의 동기들은 더러는 알 것 같았지만 나에게서는 생소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상원씨의 따님 Amanda와 우리 딸 Clara가 섞여 있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다음 날은 89명의 동기들이 세 버스에 갈아타고, 박경리 씨의 "토지"에 나오는 하동의 평사리 최 참판이 살던 곳을 방문 했는데, 2주 전에 12권의 책을 단숨에 읽었기에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그 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여러 번 대학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다음날은 통영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임진왜란 대첩을 다시 상기 하면서 영화도 보았는데, 우리의 역사에는 얼마나 적은 의인이 있었는가를 의식하면서 참말로 부끄럽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버님이었고, 다음 날 일찍 조반을 먹고 남편과 딸과 같이 전철과 택시를 번갈아 타면서 범어사 뒤쪽 산에 고이 모셔 둔 영락공원의 아버님을 찾았다. 2000년 8월 12일에 방문을 했었으니 12년 만인데, 아침 해는 다정하게 비치고, 여러 가지의 조화들은 이곳저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가하고 있었다. 번호가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22년간 이북의 형제들을 내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고 있다는 것과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은 결혼하여 행복이 살고 있으며, 6살짜리 Isabella와 4살 먹은 Olivia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과 나는 정말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 오직 한 가지 염원은 주원이 좋은 배필 만나도록 도와 달라는 것이었다. 정말로 나를 황주에서 잘 데리고 나왔고, 잘 길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우리 셋은 손잡고 정중한 인사를 드렸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항구로 대두하고 있는 부산 항구, 누리마루 호를 타고 불비는 항구를 지나칠 때는 오륙도(밀물일 때는 5개의 섬으로 보이고, 썰물일 때는 6개의 섬으로 보인다), 해운대, 광안리 등 낯익은 이름들과 우뚝 우뚝 솟아 있는 여러 채의 아름다운 아파트들을 쳐다보면서 50여 년간이란 길고 긴 세월이 흘러갔음을 생각하고 내 나이를 자각하기도 했다.

여름 방학이면 광안리의 시골 방을 하나 얻고, 대여섯 명이 밥해 먹으면서 끼어 자고, 모래밭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미래를 꿈꾸어 보던 우리들, 명자, 미자, 수자, 영순... 모두들 그림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며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다.

점심을 먹고 서울로 떠난 버스는 하루 종일 달렸고, 중간의 휴게소들은 나무랄 데 없는 시설들이었다. 삼원가든에서 푸짐한 갈빗국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이순형 회장님, 이정균 총무님, 그리고 지재근 감사께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보내

면서 2박 3일의 뜻 깊고 재미있는 우리들의 남해 여행은 막을 내렸다.

며칠 후인 23일 우리 미주 동기 16명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태어나고, 어떻게 사무라이로써 권력을 펼쳐 나갔는지, 더 자세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 400여 년 전의 그들의 유적을 찾아 오사카 비행장에 내렸다. 아시아 여행사의 정수자 사장, 그리고 동경에서 여행사를 하고 계신 백호철 사장이 동행을 했는데, 김호균 부부의 주선으로 정정수, 권익현, 김한중, 박종건, 윤홍철, 민경환, 그리고 우리 오태요 부부 16명의 정다운 일행이었다.



오사카성은 큰 돌을 쌓아 얼마나 튼튼히 견고하게 잘 지었는지 웬만한 적군은 충분히 잘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성안에 우뚝 서 있는 천수각은 풍신수길이 1583년 지었고 1615년에 불 탄 것을 재건한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나라에서 만난 수많은 사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을 반기는 듯 했으며, 우리들의 가방 속에 있는 과자 냄새를 맡기에 여념이 없었다. 먹을 것 충분하고 사람 많이 받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슴들 같았다.

유명한 목조 건물인 도다이사 대불전을 보면서, 몇년 전에 아들이 동경에 살 때 와 본적이 있기에 더욱 친근한 맛을 느끼면서 그날도 비가 왔다는 기억을 되살렸다.

다음 날은 못 하나 쓰지 않고 130개의 거대한 기둥들이 받치고 있다는 청수사를 방문하고, 교토를 대표하는 금각사로 갔는데 1379년에 금박을 입힌 호화스러운 건축물로 호수에 비치는 그림자는 더 아름다운 듯 했는데, 10여 년 전 우리가 왔을 때는 빗꽃까지 만발해서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지금은 늦가을의 단풍과 잘 조화를 이루어 화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호수 앞에 있는 돌로 꾸며진 정원 묘안지, 하얀 돌로 물의 흐름을 만들었고, 돌의 모양 크기, 배치를 통하여 우주를 표현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15개의 작고 검은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높은 마루에 앉아서 보면 13개나 14개로 보이고, 한꺼번에 15개는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관찰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여행 때였는지 어딜가나 까맣고 진한 곤색 교복 입은 학생들로 붐볐다. 많은 여학생들은 세라복을 입고 있었는데, 반세기가 지나도록 구태의연한 일본인들의 태도와 변할 줄 모르는 생활 방식에 놀랍고 한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나도 58년도에 저런 세라복을 입었었지." 생각을 하면서 50여 년 전의 경남여중 다닐 때의 순진했던 어린 시절로 잠시 되돌아갔다.

그 후 "철학의 길"을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조용한 마을길을 걸었는데 2-3m의 아래 있는 개울물은 너무나 깨끗하고 맑았으며, 더욱 감탄했던 것은 어디를 가나 담배꽂초나 휴지하나 발견 할 수 없이 깨끗한 나라와 국민

들이었다. 그러나 큰 호텔의 앞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너무나도 답답한 것은 물론이고 새 세대를 따라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점심 후 우리가 처음 도착 한 곳은 "귀 무덤"이라 했고 제법 큰 크기였다. 1592년 즉 일본이 쳐들어 왔을 때 많은 조선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은 왕에게 전쟁의 승리를 보이려고 코나 귀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 가져 왔는데, 자그마치 4,000여명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1940년대에 윤동주 씨는 이곳을 방문했고 시까지 썼는데, 그는 사상범으로 투옥되었다가 결국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쳤다고 했다.

다음날은 1,450m 하쿠산을 지나면서 가을 단풍을 만끽할 수가 있었다. 말과 글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절경에 다른 단풍이었고, 오직 좋은 카메라 렌즈만이 그대로 그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었다. 좋은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는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보였다. 다행히도 정 사장님이 많은 사진을 찍어 주셨고 동기들은 거의 다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

수십 개의 굴을 지나고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협곡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라가와코 합창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이었다. 갓소쿠리란 식으로 지어진 민가로 지붕은 많이 쌓이는 눈을 방지하기 위해 60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은 겨우 18도가 남아 있고 "Last Samurai" 촬영지라고 했다. 짙인지 갈대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우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지붕의 밑에서부터 거꾸로 엮어 올라가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보면 자그마치 지붕의 두께는 1ft가 넘는 것 같았고 50년에 한번 씩 바꾼다고 했다.

여관에 들기 전 이치리노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두어 시간 더 달렸는데 백사장은 오다노그나가 사무라이의 DVD를 보여 주면서 일본말 모르는 우리들을 위하여 번사 노릇을 해 주었는데 재치있게 자기의 농담을 섞어 가면서 우리들을 웃겼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혼이 빠진 듯 이야기에 몰두되어 있었다.

산들로 둘러 싸여 있는 산골이라 해는 6시도 되기 전에 빨리 졌다. 이날 밤은 다다미를 깔아 놓은 일본 여관의

로 가서 민박을 했는데, 9명의 여자들이 한 집으로 갔고, 그 옆집에는 남자들 8명, 그리고 안내자와 운전수는 각기 다른 곳에서 잔다고 했다.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 집 주인은 이불을 깔아 놓았고, 서너 개의 이불 위라 그런대로 편안 했다. 8시가 지나자 피곤하니 잘 수 있겠지 생각하고 누웠으나 잠이 올 리가 없었고, 우리들은 Mrs. 정과 Mrs. 윤 방으로 가서 잡담을 하다가 9시가 지나서야 각기 자기들의 방으로 갔다. 아침을 먹고 떠날 때 몹시도 착해 보이는 주인과 남편들을 보살피던 아주머니는 우리의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 까지 집 앞에서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2,450m가 되는 입산-후부 Tateyama Kurobe Alpine Route를 넘어가는 날이다. 3,000m 급 봉우리들의 전망은 북 알프스의 경치와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고 86km에 이르는 산악 루트였다.

Tateyama Tunnel을 Trolley Bus로 지나고, 작은 케이블카와 큰 케이블카를 번갈아 바꿔 타 가면서 댐에 이르렀고, 1963년 쿠로베 댐의 완성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호수 위를 걸어서 넘었으며, 우리들은 아름다운 산과 단풍과 눈이 뒤덮인 산을 조금이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사진들을 찍었다. 드디어 우리가 정상에 다 달았을 때는 며칠 전에 잔뜩 내린 눈으로 더욱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다테야마의 최고 봉우리에서 든든히 점심도 먹었고, 일본에서 제일 높다는 350m의 웅장한 소묘폭포를 뒤 배경으로 하고 단체 사진도 많이 찍었다. 2시가 지나서 우리는 버스를 만났고 타시 습지에서 가마코치 산책로를 걸었는데, 덩지도 습지도 않은 70도의 청명한 날씨에 Board를 걸으면서 감탄을 마지않았다.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하면 그들은 멀리서 기다려 주었고, 휴지 하나 함부로 버리지 않는 국민,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절대로 남에게 필요 없이 신세를 지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는 그들의 공중도덕 관념에 나의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싶다. 언젠가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되겠지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들은 또 다시 온천을 즐기면서 하루의 쌓인 피로를 풀고, 크고 화려한 여관에서 Farewell Party와 일본 남자 가수의 노래에 빠져들고 있었다.

농담 골목

부부 두 사람 다가 60세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비행기 표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마누라가 자기보다 30세쯤 젊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90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의사를 찾아 갔습니다. 의사가 그의 증세가 얼마나 심한가고 물었더니, "방귀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의사가 준 처방을 갖고 약방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그가 약사에게 그 약에 대해 물었더니, "이것은 방귀 소리를 크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면)

선생님이 아이에게 숙제를 형편없이 해 왔다고 꾸지람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너희 아버님을 한 번 찾아뵙고 말씀 드려야겠구나. 학생: 선생님, 그대 보셔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숙제는 맨날 아빠가 하셨으니까요. (이덕승)

몹시도 추운 겨울날, 기말 고사가 끝난 뒤, 선생님: 너희들, 이번 기말 고사 성적이 아주 나쁘다. 성적이 평균 50점 아래인 학생은 교실 밖에 나가 있고, 50점 위인 학생은 교실에 그대로 있어라. 삼식이: 선생님, 그럼 50점은 어디에 갑니까? 선생님: 50점은 문에 끼어 있도록 해. (이덕승)

목장을 경영하는 노인에게 그가 몇 마리의 사슴을 갖고 있는 가고 물었더니 289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나이를 물었더니 "한 80 넘었는데 확실히는 모른다." 고 했습니다. "아니, 사슴 숫자는 정확히 아시면서 어찌 어린 신 나이는 모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야 사슴은 훔쳐가는 놈이 많아서 매일 세어 보지만, 내 나이야 훔쳐가는 놈이 없어서 그냥저냥 산다오." 라고 했습니다. (허선규)

이제 이 아파트에서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 주인이 3년 전에 우리가 이사 오던 때와 똑 같게 원상 복구를 해 놓으라고 하니 그 많은 바퀴벌레들을 어디에서 구하지? (김세-)

67년 졸업, 45주년 동기 모임에 다녀와서

미주동기회장 최 무 용 (67, 펜실바니아)



1. 칠십 星霜風雨에 가리웠어도 옛 모습 그대로.

서울과 미동부의 중간쯤에 자리 잡은 지리적인 장점,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울만큼 변동이 적은 아열대성 기후의 아름다운 해변 등등은 Hawaii를 우리 동창 선배님들 모두에게 가장 인기 있는 Reunion spot으로 만든 것 같다.

우리로 66년 졸업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Hawaii Cruise를 졸업 45주년 기념 모임 장소로 정하고 강명식, 이근웅 동기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아 동기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출범 한 것이 일 년 남짓. 선배님들로부터 습득한 작년 행사 경험이 크게 참고가 되었다.

그간의 수많은 크고 작은 준비 활동들이 마무리 되고 열원과 기대가 가득한 우리들의 축제는 10월 6일 토요일 오후 Cruise Ship에 모두들 승선이 끝난 직후 이번 행사의 일등 공신인 이근웅 동기의 안내와 진행으로 시작 되었다.

졸업 후 45년이 지난 후 처음 만나는 동기들도 몇몇 있었다. 예과 시절부터 꼬아 보면 반세기가 지났어도 칠십 성상 뒤에 숨은 옛 모습은 한눈에 알아 볼수 있었다. 기실 공들여 만든 명찰은 동기들 영부인들에게만 필요 했던 것 같다.

2. 시원한 바닷바람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해안선과 함께 하와이의 가장 큰 보물.

상세한 기행담을 略 하더라도 Cruise Ship의 항로를 추려서 적어보면,

첫날 Oahu 섬의 Honolulu를 저녁시간에 떠나 이튿날 아침 Maui 섬 Kahului에 도착, 하루를 묵고 저녁식사가 시작될 무렵 Big Island (하와이 섬)의 동해안에 위치한 Hilo로 떠나 다음날 아침에 도착 하였다. 그날 저녁으로 하와이 섬의 남단을 돌아 그 섬의 서해안에 위치한 Kona에 이른 새벽에 도착, 다시 그날 저녁으로 우리가 여행한 하와이 열도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Kauai 섬 Nawiliwili에 장거리를 운항하여 다음날 아침에 도착 하였다. 그날은 정박한 채로 하루 쉬고 그 이튿날 이른 오후에 유난히 아름답다는 Kauai 섬의 동쪽 해변을 끼고 북상하였다.

석양 무렵 船首를 다시 남쪽으로 돌려 출발점인 Honolulu로 향하였다. 낮에는 거의 수직으로 쏘는 햇볕에 화씨 85도 정도의 덥고 비교적 습한 날씨 그래도 항상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시속 10마일 정도의, 미풍이 라기보다는 좀 강한 바닷바람 덕분이다. 그래서 해변 야자수 그늘에서 연인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열대 칵테일을 즐기는 것이 아마도 하와이 관광객들의 꿈이리라.

다섯번째날 Kona Country Club에서 52명 동기들이 모여 골프를 치던 날은 상황이 달랐다. 화씨 87도의 덥고 습한 날씨, 강한 일광, 웬일인지 (혹시는 지형 탓인지) 바람도 없었다.

필자와 우영남 동기는 땀이 비 오듯, 그가 준비해온 팜수건 (그야말로 육수수건)도 크게 효험을 못보고 우리들은 겹옷까지 함뿍 젖었다.

3. 안방 모임이라 불려도 하자(瑕疵)가 없었을 “우리들의 사랑방 모임”은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후에 Diamond Head Auditorium에서 진행.

우리를 실은 Hawaii Cruise Ship은 Norwegian Cruise Line(NCL)의 Pride of America. 선객과 선원을 합쳐 3천명쯤 수용 할 수 있는 8만톤 정도의 보통 크기라고 하는데 또다시 느껴지만 배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산더미처럼 시야를 가득 채웠다. 이 큰 선박의 맨 꼭대기층 앞부분에 넓게 자리 잡은 Diamond Head Auditorium은 일주일간 우리들 사랑방의 공간, 즉히 300명 이상을 채울 수 있고 Audio Visual System이 완벽한 장소였다.

첫날 저녁 사랑방 모임은 환영회라 불리워 김풍명 동기의 인도로 교가제창, 타계하신 20 동기들에 대한 묵념, 지난 일 년간 준비 활동을 성실히 그리고 듬직하게 끌어온 준비위원장 강명식 동기의 환영사, 예나 다름없이 친근감에 유머를 구사하는 우영남 한국 동기회장의 축사, 현재 미주 동기회장을 맡은 본인의 축사로 시작 되었다.

4. 한 달 이상 걸려 작성했다는 Dinner Table 배경표- 그래서 자주 만나는 편안한 친구도 좋지만 오랫동안 적조하였던 동기들과 회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우리들의 저녁 만찬 시간은 6시, 모두들 매일 정시에 나타났다. 명찰과 Program Booklet에 디너 테이블 번호가 지정되어 있고 그 테이블에만 가면 어제는 다른 동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엔 모든 동기들과 한번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웃고 마시고 떠든 기분이었다. 이번 행사의 또 하나의 성공담이라 할 수 있겠다.

5.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임, 관중인 동시에 연출자 그리고 연기자.

“나의 오분간” “나의 18번”은 참으로 이에 걸맞는 이름이다. 첫날 사랑방 모임의 진행은 예나 다름없이 골프 행사에 노고가 많았던 機智의 鬼才 김상복 동기가 진행을 맡았다. 그날 나의 오분간 (혹은 심분간)에는 (1) “서울의 대 동기들 다시 모였네”라 명명한 노래를 작사하여 다 같이 제창하며 즐기게 한 이소희 동기. (2) 항상 조용한 미소를 머금은 육태식 동기의 잔잔한 한마디. (3) 진지한 관광의 達人 유진일 동기, 요즘은 사진촬영에 흠뻑 빠져있다. (4) 배에서 제공하는 와인 마시는 대신 와인 140병을 구입, 배로 운반하여 매일 저녁 마시게 함으로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좋은 와인을 즐길 수 있게 하여준 우준균 동기.

둘째 날은 새벽에 주일예배를 드렸는데 방정화 장로의 인도, 전영성 장로의 기도, 이소희 장로의 말씀 선포로 큰 은혜를 받았다.

저녁 식사 후 ‘사랑방 모임’은 골프 담당 위원장으로 이번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항상 자상한 홍준호 동

기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그날은 특히 요즈음 무릎이 좋지 않아 dance의 선이 제대로 안그려 진다는 이태안 동기 부부의 율릴 나는 Rumba Demonstration과 모든 동기들이 참가한 댄스교습, 물론 사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와 말 춤도 즐겼다. 이날 나의 오분간에 출연한 동기들은, (1) 말없이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준식 준비위원, 첫날 저녁 건배사도 맡아 주었다. (2) 조용한 설득력의 소유자 방정화 동기, 해외 선교에 열심이다. (3) 부산 해운대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 서부근 동기. (4) 언제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는 이병주 동기.

셋째날 사랑방 모임은 재치와 유머의 달인 오수명 동기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현대판 고금소총의 대집성, 편집의 정연함이 놀라웠다. 언제쯤 출판을 부탁할까 한다.

이날의 “나의 오분간” 혹은 “나의 18번”에는, (1) 30주년 동기행사를 주관하였고 이번에도 사진 촬영 책임을 지고 수고하신 한창국 동기. (2)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골프 경기 운영에 세세한 일들을 떠맡은 전영성 동기. (3) 언제 보아도 편안한 한국 성형외과의 대부 박철규 동기. (4) 10년 전 졸업 35주년 동기행사를 주관하였고 이번에도 준비 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한 김영철 동기. Mrs. 김의 이미지 노래는 일품이다. (5) 지난 몇 년 동안 수차례 만날 기회가 있어 익숙해진 우리와 같은 실습조 최용목 동기 걸쭉한 목소리로 한 곡조.

그리고 그날 저녁의 특별연사로 등장한 이민우 동기, “평생 관운이 없어서 국민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 벼슬 한 번도 못해보고 이번 행사에서 간절히 바라던 tour group의 조장 감투마저 놓쳐 버렸다”고 시작한 그의 강연은 Pathologic Science와 Semi x-Rated Humor를 넘나들며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주었다.

넷째 날 사랑방 모임은 무슨 일을 말든지 성심껏 최선을 다하는 김성일 동기가 주최한 “童心의 할로윈 파티” 한국에서 가발들과 인형 등 소도구를 준비해 와서 재미있게 진행하여 많은 폭소를 자아내었다.

여기 이 美名의 “나의 오분간”에 색동 가발을 쓰고 동원된 동기들은, (1) 의리와 의지의 친구 김성철 동기, 클래식 음악에 심취해 있다. (2) 지난 일들을 흥미있게 이야기 해준 김근우 동기, 대중 연설을 많이 해본 솜씨이다. (3) 무엇이던 하면 철저히 잘하는 이태석 동기, 건강식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요즘은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한다. (4) 항시 가까이 느껴지는 뉴잉글랜드 지방의 터줏대감 한서동 동기.

이날 저녁 특별 연사 문옥륜 동기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개발을 위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틀이 잡힌 강의 “Afghanistan의 어제, 오늘, 내일”을 들려주었다. 그에게서도 옛 모습 그대로, 그 화술엔 큰 변함이 없었다.

다섯째날은 저녁 식사 후 칵테일 시

간을 가졌고 사랑방 모임은 이민우 동기가 사회를 맡은 우리 모두를 위한 칠순잔치. 김풍명 동기의 축가 후에 동기 부인들께서 손수 나누어준 생일축하케익을 맛보았고 부인들의 Happy Birthday 노래로서 축하를 받았다.

이날 “나의 오분간”에는 (1) 온화한 분위기와 차분한 말솜씨에 조한익 동기. 부부가 부른 노래는 모든 동기들의 마음도 차분하게 하여 주었다. (2) 미국에서 있었던 동기 모임에선 항상 보아온 김태웅 동기. 언제나 웃는 얼굴이다. (3) 나와 서울에서 한 잔을 약속한 의리의 사나이 홍영식 동기, 조금 있다가 행해질 부인의 특별 출연에 다소 긴장한 눈치이다. (4)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혼이 나고도 아직도 정열이 넘치며 비행기 조종하며 다니는 박정일 동기의 무용담. (5) 아끼었던 미소를 많이 보여준 항상 침착한 안영락 동기. 이어서 특별 초청 연사로 등장한 Mrs. 홍영식은 “칠순을 맞이한 여러분들께”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타고난 재능 코메디언의 원숙미를 마음껏 보여주어 모든 동기들과 영부인들을 정신없이 웃게 만들었다.

여섯째날 사랑방 모임은 표현하기 어려운 magnetic personality를 지닌 한영수 동기의 사회로 진행 되었다.

이날 나의 오분간에는, (1) 위에서 몇 번 언급된 한국 동기회장 우영남 동기의 익살맞고 언제 들어도 재미있는 이야기. (2) 미주 동기중 가장 먼저 은퇴하여 뉴욕과 후로리다를 오가며 미동북부 동남부 모든 동기들과 모두 가까이 지내는 박희명 동기. (3) 또 한명의 뉴욕지구 터줏대감 김일환 동기의 한마디. (4) 외과 개업보다도 천주교 부제로서의 사명 완수에 더 바쁜 진실한 신앙인 최승용 부제님.

특별 연사는 최창식동기인데 지난 수년간 Navajo Indian Reservation에서의 봉사한 그의 체험과 그의 철학을 slide를 보여주며 흥미롭게 이야기하여 주었다.

일곱째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지막 날 사랑방 모임은 송별 모임 이었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 산부인과 개업한 후 은퇴생활을 즐기는 오세기 동기와 오랫동안 동기회를 위해 봉사했던 한국 신경외과의 원로 김국기 동기가 선물까지 준비하여 진행 하였다.

골프 시상식이 있었고 끝이어서 “나의 오분간”에는 (1) 오늘 저녁 김국기 동문을 도와주는 오세기 동기, 그는 과거 수년간 한국 동기회 일을 맡아 많은 수고를 하였다. (2) Ohio 주에 은둔하면서도 항시 소식 주는 김영곤 동기. 부인은 유명한 여류 화가 유부강 씨이다. (3) 동기회 행사에 정근상을 받은 만한 우명식 동기, ‘동구밭 과수원길’ 노래를 부부가 정답게 불러주었다.

이날 특별 연사는 성균관 대학 총장 서정돈 동기였다. 지적 익살, 해학, 풍자를 가득담은 현대판 “四字成語의 이해”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의 총장님의 강의는 일품이었다.

다음 순서는 모든 동기들을 동서남북 네 팀으로 나누어 (다음면에 계속)

紙上法醫



패혈증의 원인

노용면(55, 대뉴욕)

75세인 크루즈씨 (Mr. Cruz)가 뉴욕 시 퀸즈 카운티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병원의사가 그의 죽음을 패혈증이라 진단했고, 그것이 자연사라고 보았기에 법의관실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크루즈씨가 7개월 전에 킹즈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것은 방화였는데 네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크루즈씨의 죽음이 그 화재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거리였다.

미국 법에 의하면, 법의관실에 통보해야 할 사건을 고의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킹즈 카운티였지만 그가 사망한 곳은 퀸즈 카운티임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이것을 조사해야 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지만, 법의관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나 시체가 발견된 장소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

나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크루즈씨의 병원기록, 소방서 보고서, 그리고 경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환자의 가족을 면담할 계획을 세웠다.

병원기록은 10 cm의 두께였다. 크루즈씨가 퀸즈 카운티에 있는 병원에 처음 간 것은 화재가 발생한지 나흘 후였다. 그때 그의 등에 심한 화상이 있는 외에도 대장에 게실염(diverticulitis)이 있어 참자의 일부가 막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 그는 병원에 3개월 반 입원하고 퇴원했다. 그런데 그가 퇴원한지 보름 후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해야 했으며, 결국 패혈증으로 3개월 후에 사망하였다. 문제의 화재가 발생한지 7개월 후에 사망한 것이다.

내가 우선 크루즈씨가 처음 입원했을 때의 담당의사와 연락을 했다. 그는 화상 전문가였는데, 자기로서는 환자의 등에 있던 심한 화상이 사망원인과 연관이 있다고 분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두 번째 입원했을 때의 담당의사가 왜 이 케이스를 법의관실에 보고 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는 크루즈씨가 두 번째 입원했을 때의 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그 환자의 죽음을 법의관실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 보내라고 했다. 그는 내과 의사였다. 곧 보고서를 보내

왔는데, 거기에는 그 의사와 병원장이 같이 서명을 했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환자의 대장 게실염이 파열되어 복막염이 생겼으며, 결국 그것으로 패혈증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혈증은 게실염 파열에 인한 것이지 화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서의 기록을 보니, 크루즈씨가 다른 피해자들과 킹즈 카운티 병원으로 실려 갔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 연락을 해 보니 그의 이름은 없었다.

경찰보고서에는 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크루즈씨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다.

크루즈씨의 조카를 면담했다. 화재로 말미암아 자기 숙부가 등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 불이 난 다음 날 그를 퀸즈에 있는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다. 그런데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이 난지 나흘 만에 동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가 킹즈 카운티에 있는 병원에 간 적은 없다고 했다. 입원 후 석 달 반만에 그의 등에 있던 상처는 완쾌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숙부가 두 번째로 입원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이 좋아 친구들과 어울려 외출도 했다고 했다.

법의수사에서 사건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시체를 부검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다. 여러 군데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갖고 사건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케이스에서 가렴 그의 죽음이 화

재와 연관이 있었다면, 그것이 방화자가 저지른 죽음이나, 타살로 분류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우리 사무실은 철저한 조사 끝에 크루즈씨의 죽음이 그 화재와는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저지른 방화범은 15세의 서바나계 소년이었다. 그는 방화로 네 사람을 죽게 한 죄로 현재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법의수사 결과로 그 아이가 다섯 사람까지는 죽이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그가 주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있는 일들을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보고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었다. "며칠 계속된 재판 도중에 그 아이가 내내 똑 같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손에 수갑을 찬 채 법정에서 들어왔으며,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갑을 차고 그곳을 나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이라곤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도 그에게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법정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그 소년을 바라보는 법정 서기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References:

1. Yong-Myun Rho: Legal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Past and Present.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1 : 9-12, 1977.
2. Yong-Myun Rho: Medical Examiner's Authority. Challenges to Perform Autopsie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81 : 1687-1688, 1981.

지난 8월, 암 전문의사의 정기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6개월 전에 찍은 Chest CT scan에 미시적인 덩어리가 있으니 3개월 후 다시 찍어보라고 하였다. 11월 방사선과에서 지정해준 어느 날 scan을 또 하였더니 이번에는 흉곽내과 의사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유는 CT scan에 희미한 혹(Nodule)이 보이는데 생체검사(Needle biopsy)를 하여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아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암 전문의 Dr. Sam Bobrow는 1988년부터 나의 폐암을 치료하기 시작하여 결국 원판 폐엽수술을 추천해 준 동료 주치의 사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생기는 모든 증상을 수술전후를 비롯하여 항상 살살이 뒤져 보고 있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 이제 내 나이 일흔 셋(73)에 1992년에 수술 받은 그 반대편 가슴에 보이는 조그만 혹이 양성이든 악성이든 무슨 소용이 있으랴 마는 그래도 소개해준 흉곽내과 Dr. Brett Gerstenhaber를 찾아 갔다.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어쩌면 그렇게 같을 수가 있는지 믿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그는 Needle biopsy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위엄 있게 딱 잘라 말했다. 우선, nodule이 자라나는 속도가 아주 느

리고 또한 그 부위가 생체검사를 하기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 biopsy의 성공률이 50% 미만이라고 알려 주었다. 운이 좋아 biopsy에 성공하여 양성이라는 확진이 내리면 아무 치료도 필요 없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으며 문제가 된 nodule은 계속 자라나면서 악성이 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생체조직을 심하게 건드린 후유증에 이겨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만일 조직검사가 악성인 경우 화학약품이나 방사선 치료가 뒤따르게 마련이지만 나처럼 이런 치료를 20년 전에 이미 경험하고 원판 가슴 아랫부분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은 환자에게는 치료의 효과보다 합병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느라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가였다. 처음부터 나는 biopsy에는 회의적이었기에 거절하고 Dr. Gerstenhaber 사무실을 나오는데 그는 골프나 즐기라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

나는 이렇게 살고있다



오태희(64, 커네티컷)

다. 몇 주일이 지나 Dr. Bobrow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그 동안 Yale 동료 교수를 진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라 생각한다. 나는 잘 돌봐줘서 내가 아직 살아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하니, 그는 "I have done nothing, but you were lucky." 라고 대답 하였다. 한데, 글이라고 쓰다 보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는 글제를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하는 편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삶과 죽음은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걱정은 금물이다. 걱정을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얘기를 바꾸어, 특히 올해 2012년은 멀리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독재자들이 연달아 시민단체와의 전쟁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국제적 경제 공황은 유럽 각국이 파산을 선언할 지경에서 해매고 있다. 정치나

경제를 모르는 나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돈의 돈에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 내가 끼어 들 일이 아니다. 다행히, 내가 사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구박을 받고 있으나 세계의 일등 강대국 대통령의 책무를 알아서 수행하고 있다. 폭풍 샌디가 지나간 후유증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없지 않으나 그래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하나라고 자부한다.

우연이지만, 나의 조국, 한국도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조국의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든, So what I care라 하고 가수 싸이가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연출하는 강남 스타일 말 춤을 즐기면 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마땅히 태극기 앞에서 애국가를 부를 줄 아는 정치인이 당선되어야 한다. 애국가를 거부하고 태극기를 짓밟는 동무가 어쩌다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대한민국이 무슨 꼴이 될까?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념의 전쟁이다. 인천의 별 맥아더는 일찍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를 잃는다" 고 했다. 나는 조국을 떠나 왔으나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는지 그 것 하나만은 아직도 걱정이다.



〈전면에서 계속〉 김국기, 오세기 동문이 준비한 단체 놀이를 하였다. 특히 김국기 동문은 이날 저녁을 위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하였고 오세기 동문과 더불어 한국에서 게임 상쯤까지 마련하였다.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가 제기차기 풍선불기, 병 돌리기 신발 벗어 둥근 원 속에 넣기 등등.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지막으로 한국 동맹회 준비위원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이렇게 많은 한국 동맹들이 참가 할 수 있게 애써

준 한국 동맹회 총무 김수남 동기의 송별사와 강명식 준비위원장, 이근웅 준비위원회 총무, 또한 본인의 감사의 말씀을 드린 후에 모두들 손에 손잡고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서 섭섭한 마음을 달래었다. 이렇게 하여 참석한 46커플 동맹내의 모든 분들께서 한번 이상 원형극장의 큰 강당 한가운데 위치한 무대에 섰다.

행사전 Fund Raising 에 이번 reunion에 참가한 미국 동맹들 전원이 응하였듯이, 강명식, 이근웅 동기가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

6. 거의 완벽하게 성공적인 모임.

하선 하던 날 이른 아침, 나는 태평양의 일출을 보기위해 또다시 감관위에 올랐다. 그날도 짙게 내려갈린 낮은 회색 구름으로日出은 색조의 변화만 주었다. 붉게 물들어가는 수평선 위에 아직 City light들이 반짝이는 호놀룰루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감관위의 쌀쌀한 바람을 맞으면서 나는 짧은 想念에 머물렀다.

"박제(剝製)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로 시작하는 李箱의 단편 "날개"에서 虛構와 그의 글 솜씨의 수식을 삭제하고 난후의 그 소설 안에 "나"라는 존재의 아마도 사치로운 고독 같은 것을?

은퇴 후 몇 번인가 체험한 것 같다. 지나온 시간들을 이제 회고하고 정리하는 과정도 젊은 시절 그것들을 꾸미고 실천하는 것만큼 보람 있고 또 즐거울 수 있으리.

일선에서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 동맹들은 물론, Hans 여행사, 무엇보다 우리의 이 모임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 미국에서의 모든 동맹들의 협조와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다음 모임 때까지 모든 동맹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 있었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행운으로 생각한다.

케네티켓의 추억 후편

강창욱 (61, 메릴랜드)

시계답 35권 1호, 2008년 1월 20일 판에 '케네티켓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필자의 추억담이 발표되었다. 중추(仲秋)에 내 제2의 고향인 케네티켓 여행이 내 맘을 채워 나도 감당할 수가 없어 쏟아내어 쓴 글이었다. 그 추억과 관련이 있는 글을 다시 쓰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14일 뉴스에 케네티켓의 뉴타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보도를 보고 너무도 놀라웠다. 밤낮없이 이주일째 계속하는 뉴스를 들을 때 마다 악몽의 연속이었다. 한 청년이 자 동소총으로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선생을 근거리에서 학살을 하고 난 뒤 자기의 모친을 사살 한 후 자신도 자살했다는 뉴스다. 그 것이 케네티켓의 뉴타운 센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닌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의 악몽이었다. 하필이면 뉴타운에서? 나는 한참 멍 했고 이것이 꿈이 아닌 가 하였지만 곧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는 맘속으로 안절부절 했다. 우리 미국 호스트 패밀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녔는데,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불안 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답답함뿐이다. 나는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 않거나 마음은 멍해지니 오히려 고맙게 여겼다. 그런 멍한 무감각한 감정 상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의해 심하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증상임은 알고 있다. 이것이 악몽이며 이것으로 부터 곧 깨어나기를 빌었다. 모든 뉴스가 밤낮없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되풀이하고 이제는 온 세상이 보여주는 감각적 동정과 온정이 전에 없이 넓은 폭으로 표현 되고 있지 않은가.

몇 주 전에 심한 태풍 센디에 의해 피해를 입고 아직도 지붕 없이 사는 사람들 까지도 센디훅 가족들에게 동정의 구호를 한다. 금년에는 센디라는 이름이 그리 아름답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마저 스쳐간다. 피살당한 아이들의 얼굴이 텔레비전에 비취면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다. 솔직히 그 부모들의

심정을 더듬기조차 피하고 싶다. 온 세상은 이런 참사를 예방하는데 대한 총기관매통제에 관해 갑론을박(甲論乙駁)을 속출하고 있다. 한편 옛 뉴타운의 추억에 끌려들어가 뉴타운과 나와 의 인연을 돌이켜 보는 나를 발견한다. 나에게 뉴타운은 마냥 아름답고, 피부색이 다르고 말을 더듬는 초면부지의 사람들을 그네들의 품에 거침없이 아낌없이 정겹게 안겨주던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곳을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이 한 인사말 '위 윌 미트스 유' 라는 말을 건승 킷전으로 들고 다시 찾아오면 될 것을 하며 가볍게 여겼다. 사실 몇 년 후에 다시 방문을 했지만 벌써 여러 가지 변화한 것들이 많았다. 그 때 벌써 나는 내가 기억하는 뉴타운을 내 기억에 아름답게 간직 하고 싶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또 다음에 다시 와 보면 될 것이라 여기며 떠나왔다. 역시 추억은 그리움이라는 아름다우면서도 강렬히 영적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하여준다. 추억은 모정(慕情)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 그 것을 받고 쌓아온 그리움의 이상촌에 마치 불을 지른 것 같은 이 참사에서 받은 나의 감정을 정리하기가 어렵다. 이상하게도 이번 참사는 나에게 증오를 일으키지 않았다. 누구를 탓하기도 싫다. 그러면서도 무참하게 떠난 어린 영혼들에게 끌려가는 심정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다. 나는 센디훅 소학교에서 더듬는 영어로 한국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어찌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만 모았을까 하는 생각 까지 하였다. 그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 할 때는 너무도 귀여웠다. 그 때의 그리운 것들을 기억에서 살려보면 잠시나마 이 착잡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본다. 온 세상이 찾아내려는 그 참사의 원인도 나에게서는 관심이 없다. 추폭한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 여신다.

케네티켓은 총으로 이루어진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부는 콜트루혈포로 정복했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이는 "미국의 서부를 정복한 것은 윈체스터다"라고도 했다. 이들 총기들은 모두 케네티켓에서 생산되었고 케네티켓의 주요 경제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내가 뉴타운의 페어필드 병원에서 연수할 때 수많은 환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무기생산 공장에서 일을 했으며 이차대전에 미국의

주요 무기생산지가 케네티켓이었다. 이번 사건에 무기의 소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픈 마음들을 달래기 위한 책임전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정말 모순(矛盾)이라는 말의 어원 같다. 이는 유치한 치유방법 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이 저지른 행동을 무기단속이나 정책으로 방지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인간의 근본적인 광복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광복한 방법으로 가장 연약한 인생에게 자행하는 폭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런닝 아목' 처럼 여러 민족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해온다.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대답을 한다 해도 부분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나로서 답할 수 없다는 것 자인한다. 나에게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사건이 내가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파멸시킬까 두렵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이 시점에서 고의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살리고 싶다.

1965년 6월 29일 오밤중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하여 나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브루클린의 감리교 병원에서 인턴수련을 하면서 나는 뉴욕생활에 실망했다. 내가 기대하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의학 연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상하던 미국문화와 생활에 큰 기대를 가졌다. 지지분한 환경, 인정이 있을 것 같지 않은 무질서한 행동들, 영어보다 듣지 못한 이국어가 더 많이 쓰이는 것 등 등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내가 상상하던 미국을 찾아 가기로 희망을 하고 탐색을 한 결과 케네티켓 뉴타운에서 나의 전문직 연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연수를 시작 하자마자 몇 주 되지 않아 잣 결혼을 한 우리 부부가 페어필드 병원 사택에 자리를 잡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방문객이 있었다. 그는 우리를 환영 한다고 하면서 뉴타운을 소개 하고 멀리 고향을 두고 타양 살이 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한 가족을 소개 하여 주었다. 그 가족은 우리를 친 가족처럼 돌보아주고 우리는 그 마을의 생활에 흠뻑 젖게 되었다. 동리의 합창단에 가입 시켜주고, 명절날 뒤뜰 바비큐 파티에 초대하고, 명절날 가두

행진 참석을 권하고, 생일날 잔치에 초대 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호스트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한잔 커피를 놓고 나누는 담소 등은 모두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나는 이 동리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착하고, 정을 나눌 줄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미국생활의 고유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마음속 깊이 담고 있었다. 또한 자만이 아니라 나중에 외부의 의학자들의 이야기로 내가 얻은 연수가 우수하였고 거기다 나는 예일 대학에서 펠로십으로 연수까지 받은 혜택도 있었다. 뉴타운에서 우리 두 큰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데 동리의 여러분들이 마치 고향의 가족 친지들처럼 도와주었다. 우리나라 시골의 정겨운 이웃들의 정 나눔과 다름이 없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미소를 짓는다. 내가 우리 첫아이를 미국식으로 기르며 아이와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이 녀석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면서 미국 아이들과 잘 지낼 수가 있을 까 하는 기우까지 했으니 말이다.



뉴타운의 우리 포스터가족

나에게는 뉴타운은 아름다운 추억, 오래 간직하여 그리워하는 곳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이번 사건은 아주 잘못된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싶다. 왜 더 깊이 이 사건을 숙고하고 분석하지 않는냐고? 철학자 스피노자 말대로 악한 현상은 우리의 부정확한 인식에서 오는 것이라고? 마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작은 원자에서 나오는 강력한 위력처럼? 글썽 그것이 어려워 도피하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 뇌의 조그마한 생리적 착오로 이러한 너무도 무서운 파괴력은 우리가 이미 히틀러나 스탈린,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잔악한 인간들의 행동으로서 알고 있다. 내가 새삼스럽게 다시 알가알부 하면 나의 아름다운 추억만 깨어질 것 같다. 그것이 이기주의적이라고? 걱정을 많이 해야만 참된 상담인가?

개똥 썩

이원택(71, 남가주)



얼마 전 한국에 있는 한 죽마고우로부터 개똥 썩 한 봉지를 선사받았다. 자신이 직접 강원도 홍천에 있는 산속을 이틀간이나 헤매면서 뜯어온 것이란다. 금년 봄에 그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술을 사양하는 것을 보고 아마 죽을병이 들었나보다 생각한 모양이다.

예전에는 개똥참외라는 것이 있었다. 요즈음은 개들도 사료를 먹이지만 가난했던 시절의 견공들은 주인들이 먹다 남긴 음식찌꺼기로 연명을 해야 했다. 사람이나 개나 참외의 씨를 소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참외 씨가 배설물과 같이 섞여서 통째로 나오는데 옛날 개들은 따로 뒷간이 없어서 아무데나 실례를 하고 다녔었다.

나는 초등학교까지 5리쯤 되는 시골길을 걸어 다녔다. 간혹 길가에서 참외똥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개가 똥 속에 들어있던 참외 씨가 개똥을

거름으로 해서 자라난 100% 유기농 천연 작물이다. 그중에는 아마도 사람의 똥에서 자란 참외도 있었으나 이를 인분 참외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저 개똥참외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 데나 방분을 하면 사람이 아니라 개와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이다.

아침저녁 지나치면서 흑시나 다른 애들이 따먹지나 않나 하고 노심초사하다가 크기가 주먹만 해지면 병큼 따가지고 냇물에 몇 번씩 씻고나서 먹곤 했다. 개똥 맛이 배어서 그런지 약간 비릿하면서도 씹쓰름했다.

요즈음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개'란 친한 것의 대명사로 불려졌고 '개똥'이란 것도 하찮거나 더럽거나 피해가야 할 물건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인간은 역설적인 동물이다. 천덕꾸러기로 태어난 사람들이 오래 살고 더러운 것이 신통한 효험을 발휘한다고 믿는다. 조선왕조의 임금 중에 아명이 '개똥이'이었던 분이 있었고 한때는 구더기가 만병통치약으로 판을 치던 때가 있었으며 개똥은 동의보감에서도 아주 귀한 약재로 취급을 받았다.

국어사전을 펴볼 필요도 없이 우리 속담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개'이고 '개똥'으로 시작되는 합성어도 부지기수다. 예전에는 개가

인간에게 가장 충실한 동물이라고 했고 요즈음은 인간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한다.

그런데 개똥을 약에 쓰려면 없다. 개똥참외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개똥썩은 강원도 심심산골에서 심마니들이 산삼보다도 더 눈독을 들이는 약재라고 한다. 그중에서 개가 아닌 이리나 노루 등 산짐승들이 배설한 곳에서 자라난 썩을 더 고급으로 쳐준다. 곰이나 호랑이 똥썩이라면 아마 임금님도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개똥썩이다. 남들이 알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리라.

혹자는 인공으로 참외 씨를 개똥에 섞거나 속에다 개똥을 뿌려 개똥참외나 개똥 썩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으나 너무 흔하면 별로 영험이 없을 것이다. 개똥참외는 확실히 잘 듣고 개똥 썩은 이질에 특효약이라고 한다. 각종 암에도 항암작용이 있다고 한다.

언젠가 학교를 마치고 시골길을 걸어오다가 전신이 노곤해지면서 몸이 떨리고 졸음이 쏟아져 양지바른 산소에서 낮잠을 자야만 집에 올 수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 인지는 몰라도 개똥참외를 먹고 나서 증상이 씻은 듯이 나왔던 기억이 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한국에 갔을 때 속이 쓰리고 헛배가 부르면서 창자가 뒤틀리게 아파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하는 병폐가 있었다. 그 친구가 흑시 위암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한 모양이다. 그도 우리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대의학으로 무장이 돼서 영경귀나 산수유 등을 먹어본 적이 없다. 내과에 가서 진찰을 하고 검사도 하고 각종 양약을 먹어 봤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아무 때나 설사가 나오는 고질병은 좀체 낫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친구가 보내준 개똥 썩을 꺼내서 아침마다 커피 대신 한잔씩 마셔보았더니 일주일 후에 그야말로 기적같이 증세가 나아져서 요즈음은 다시 술을 마셔도 끄떡 없게 되었다. 개똥썩은 그냥 썩보다 더 쓰고 더 향내가 짙하다. 그 친구 맛이다. 끈끈한 우정이 우려난 액즙이 헐어빠진 위 점막을 덮어 버렸나 보다. 지성이면 감천이로다.

친구야 고맙다. "Dog is man's best friend." 라더니 "You are my best dog." 이토구나. 다음에 한국 가면 코가 비뿔어지게 한번 마셔보자꾸나. 내 문자 메시지에 대한 그 친구의 대꾸. "똥개는 역시 똥을 먹어야 사나이다."

조국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고향의 그리움이랄까? 한국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하는 나의 강한 호기심과 “한국정원이 무엇 볼 것이 있어요?” 라고 묻는 한 친구의 의문에 “한국에 대해 공부도 해 보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라고 대답 하고 나니 담양을 꼭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한국 정원의 특징은 첫째, 자연경관을 주인으로 삼고 인공 경관을 종의 위치에 두었다.

인간은 자연위에 군림 하지 않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또한 지나친 기교와 인위를 싫어하는 한국인의 성질이 그대로 나타 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자연의 음양 오행을 따른 성리학이 바탕이 되었다.

우리의 정원은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 하면서 경험된 자연 친화적인 정원이다.

둘째, 조선 시대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토론이 세력다툼의 당쟁으로 변질되면서 이에 실망한 지식인의 낙향 혹은 유배로 담양에 있는 이런 정원들은 학자, 정객, 시인 묵객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 가시문학의 산실이 되었다.

그 근본에는 出處之義 (선비가 대부분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관인의 자리에 있을때는 나라와 백성에 힘쓰지만, 세상이 자신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과 함께 삶을 사는 것) 의 뜻이 들어 있다.

정원을 인체와 비교해 보면 자연의 세가지 요소인 물은 피이고, 돌은 뼈이고 나무는 살이다.

정원은 자연의 세가지 요소에 인공적인 것들, 예를 들면, 집, 정자, 문, 돌담 혹은 휴담, 다리, 샘터, 석등, 수석으로 필요에 따라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한국의 정원은 자연의 경관을 주인으로 삼으므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집터를 쓰고 산세나 계곡의 물흐름은 막히지 않게 물길을 터주어 산세와 계곡에 따라 흐르고 바위사이로 계류가 되며 모이면서 연못이 되게 한다. 나무는 자연숲을 이용한다. 입구부터 소나무, 대나무로 집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볼수있는 활엽수, 꽃나무는 집과 연못근처에 배치한다.

나라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한국, 중국, 일본의 정원은 각기 다르다.

소쇄원(瀟灑園)

대나무 숲을 따라 구비 구비 오르다 보면 계곡속에 흐르는 물위로 놓인 나무 다리 뒤쪽 산기슭으로 광풍각이 보인다.



소쇄원은 조선 중기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스승인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인하여 유배 후 죽음을 당 하게 되자, 세속의 뜻을 버리고 고향 담양에 대표적 민간 별서정원을 만들게 되므로 생겨나게 되었다. 소쇄(瀟灑)는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당시 양산보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주요 건물로는 내원과 외원을 구분하는데 양산보는 송나라의 황경원이 친구 주무숙의 사람됨을 光風霽月에 비유한 것에 유래하여 霽月堂은 비 개인 하늘에 상쾌한 달이라는 뜻으로, 주인이 거처하면서 학문에 몰두하는 공간이며, 光風閣은 비 개인 후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손님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하였다. 집의 구조는 3칸의 인사 모양의 맞배 지붕 아래 한 칸의 온돌방과 두 칸의 마루가 방의 양쪽에 배치 되어 있다.

구비구비 계곡에 흐르는 시냇 물위에

자연돌로 고여서 만든 휴담장에, 五谷門이 있고, 애장단 담장에는 소쇄처사 양공지처(瀟灑處士 梁公之處) 라는 현판이 휴담속 위에 걸려 있다.

삼대에 걸쳐 계속 증축을 하여 대에는 2단의 단을 두어 매화를 심었다.

봄이면 매화꽃 만발하고 여름이면 물이 불어나 큰소리로 흐르는 물소리,

담양을 찾아서

글: 김영희

제월당에서 보는 달, 정원을 상상 하면서, 양산보와 소쇄원 사십팔경의 시를 지으며 찾아드는 당대의 묵객들의 풍류를 생각 해 본다.

식영정 (息影亭)

김성원이 자신의 스승이며 장인인 입억령을 위해 지은 정자이다. 息影亭의 의미는



“그림자도 쉬고가는 정자”이다. 김성원은 식영정 정자

아래 서하당(棲霞堂)을 지어 장인과 같이 학문에 힘썼다.

서하당의 의미는 “안개도 쉬어가는 집” 성산일대의 수려한 경관을 친구들과 나누며 즐겼던 곳으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성산별곡이 지어진 곳이다.

성산별곡의 첫마디에 “어떤 지나가던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식영정 주인 들어보소. 인간세상 좋은 일이 많건만은 어찌 한 강산을 갈수로 낮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고 아니 나오시는가.”

면양정(免仰亭)

송순(1493-1582)이 41세에 대사헌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제월봉 아래 만든 정자로 이황 (1501-

1570)과 학문 국사를 논하고 기대승, 고경명, 임제, 정철 등 후학을 길러낸 유서 깊은 곳 이다. 그가 면양정에서 지내면서 경치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노래한 무등곡이 있다. 세속의 명리를 떠나 안빈낙도의 벗과 풍류로 지내던곳이다.

면양정 가곡비에 이리 새겨져 있다. “무등산 한 즐기산이 동쪽으로 뻗어있어 멀리 떨치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들에 무슨생각하느라고 일곱 구비 한데 멈춰 무더기 무더기 벌여놓은듯... 옥천산 용천산 내리는 물이 정자앞 넓은들에 울 울히 피지는듯...”

송강정 (松江亭)

정철(1536-1593)은 문신, 정치인, 학자, 시인, 작가로 1561년 27세에 좌의정에 오르



고 그 후 당쟁에 저서 서인으로 좌천 되었다가

후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저서로 송강집과 송강 가사인 사미인곡, 속미인곡, 관동별곡, 훈민가 등으로 국민을 교화 하였다.

사미인곡 한줄: “이름이 생겨날제 입을 좇아 생겨나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오직 젊어 잇고 임 오직 날 사랑하시니 마음 이 사랑 견줄데 전혀 없다.”

명옥헌원림 (鳴玉軒苑林)

택시 운전사의 도움으로 수많은 마을 집들 사이에 깊숙히 있는 명옥헌 원림 입구를 찾았다. 우리



사진: 이견일(68, 오하이오)

만 갔더라면 도저히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오이정(1619-1655)은 아버지 오희도(1583-1623)의 네째 아들로 학문에 열중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학문과 많은 저술을 남긴 사람이다.

송시열(1607-1689)은 그의 제자 오기석을 아끼는 마음에서 명옥헌이라 이름짓고 계곡바위 위에 새겼다.

그뒤에 오기석의 손자 오대경(1689-1761)이 원림을 그대로 두고 물길을 만들어 작은 연못과 큰 연못, 정자를 세워 정자 안에서 큰 연못에 비취는 주위의 산수 절경을 볼수 있게 하였다. 그주위에 많은 배롱나무를 심어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백일간 배롱꽃이 피어 장관을 이룬다.

명옥헌은 세칸 맞배지붕, 가운데 한칸의 방이 있고 마루가 양쪽에 있는 배치 이다. 이곳은 원림을 그대로 두었으므로 담장이 없다.

한국정원은 중국, 일본 정원과 같은 눈으로 보기가 쉽다. 더구나 서구인들은 동양을 일본을 통해 배우면서 크고 큰 중국을 인식했다. 도교 유교 불교의 같은 문화권이나 중국의 정원은 주인의 연출에 의한 연극무대 같은 것이고, 일본의 정원은 인간 중심의 작위적인 그림같은 느낌을 준다.

한국의 정원은 같은 즐기이나 특히 조선시대는 풍수와 大學의 格物致知(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후천적인 지식을 명확히 함)을 목표로 하는 성리학의 바탕에서 기원 한다.

규격과 간함을 싫어하는 열정의 성정은 많은 외적의 침입속에서도 우주

생성의 구조와 인간 심성의 구조,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세등을 사색함으로 경(敬) 즉 자연의 본체를 존경하는 자세로 한국정원을 조성 한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다.

천연의 아름다움을 보니 어찌 가사한수 아니 나올스나?

한국은 물고 뜬는 당쟁으로 나라를 다 잃은 후 다시 일어서는 여러번의 정제의 과정 속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존경하고 때로는 싸우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발전으로 오늘을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 든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전철를 기다리며 “내가 정확한 입구에 서있나?” 하고 확인 하려고 눈을 들면 전철 입구 유리벽에서 수 많은 시를 발견한다.

강중훈의 ‘구름 한조각’ 이라는 시에서는 운동회날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시지 못하니 구름 한 조각 손에 쥐고 뛰는 어린이의 모습이 장하게 울려온다.

황금찬의 ‘회초리’ 를 읽으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회초리질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였다.

김춘랑의 ‘가을 밤’ 은 감나무 가지에 달이 가다 멈춰 서고 지나던 흰 구름이 그림 처럼 걸린다. ...

또 하나, 누상동에서 살던 운동주 시인이 청운동 언덕에 올라 시상을 다듬던 곳에 그의 시가 운동주의 필체 그대로 바위에 새겨져 오늘도 청운동 공원에 서 있다.

‘서시’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은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것을 사랑 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 했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디를 가나 시가 있는 한국. 화장실 문에도 붙어 있고, 고속도로 휴게실에도 있고, 마을 입구에도, 학교 운동장에도 큰 돌에 새겨져 있다. 시집이 많이 팔리는 나라.

시간과 우리 인생

이 한 중 (65, 미시간)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
시간은 끝없이 퍼져가는 노래,
시간은 영원을 싣고가는 뚝단배,

우리는 무정한 이 시간이라는 이 배를 타고 이곳에 왔는데,
배에 남은것은 그리움과 반짝이는 사랑의 별들뿐,
함께 탔던 미움들이랑은,
바람타고 떠나가는 저 구름과 같이,
지취를 감추었도다.

시간은 영원의 바다,
저 허공을, 수평선에서 수평선으로,
끝없이 여행하는 배,
너 와 나, 그리고 저 별들은 잠간 여행길에 나선 여행객들,
우리는 순례자, 우리는 방문객들,

우리는 도착지가 결정된 사람들,
우리는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 쫓아서,
우리는 끝없이 퍼져가는 노래에 합창해서,

우리는 뒤에 남기고 온 그리움과 사랑의 별들,
쫓아가면서,
미움이랑 뒤에 영영 남겨놓고,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의 아름다운 항구를 꿈꾸며,
즐겁게 노래하며, 합창하며,
쿠루즈 하면 되는것 뿐이외다.



카메룬 단기 의료봉사 여행기

홍 건 (70, 시카고)

지난달 단기 의료봉사로 카메룬을 잠시 방문하였다. 작년 가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참석한 회의 때 방사선과 의사가 그 병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광고를 접하고, 지난 1월에 케냐를 집사람과 같이 다녀온 후 날짜를 정하고, 병원에서 3주 휴가를 미리 내어서 10월말에 떠났다. 내가 이번에 방문 한곳은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접한 적도근방의 옛날 불탄서 식민지였던 카메룬의 서북쪽 산간지방에 위치한 MBingo Baptist Hospital 이라는 병원이다.

시카고에서 떠나서 중간에 한번 비행기를 바꾸어 타고 Douala 라는 곳에 도착하여 세관을 통과한 후 guest house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미리 약속을 한 운전수가 수고를 하여 7시간정도를 산골길을 달려서 사방이 깎아지른듯한 수려한 산들로 병풍처럼 둘러싸여있는 분지 안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는 병원에 도착하였다. 1952년 사람들로 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산골짜기에 나병환자 (한센씨병)들을 격리 수용하는 외딴 곳에 위치하여 있다.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작은 폭포들이 있고 매일 오후나 밤에 열대성 잠마가 내려서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물들이 제법 장관을 이루고 있으니, 세속의 복잡한 건물사이로 위치한 시카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온 나에게 정말 휴양지에 온 착각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츰 나병환자들이 음성화 하여 아직도 가족들로 부터 버림을 받고 산 너머 작은 동네에서 따로 모여 살고 있다고 하고, 병원에는 나병환자 병동이 양성 환자 몇 명을 치료하고 있는 외에는 여느 일반 병원과 다름이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의사들이 수고를 하여 현재 270 병상을 가진 훌륭한 교육병원으로 탈바꿈을 하였다. 지금은 크고 작은 수술실이 9개가 있는 규모의 외과 수련의 4년제 과정에 레지던트 9명이 있고, 또한 내과 (소아과를 비롯 일반가정의 포함) 과정의 4년제 과정에 수련의 7명이 있으며, 마취간호사 수련과정과 간호치료사(Nurse Practitioner) 과정의 간호사들도 내과 레지던트와 함께 비슷한 교육을 받고 있는 훌륭한 교육 병원이 되었다. 앞으로 500 병상으로 늘릴 계획이 있고 매 병동에 30-40 명씩 침대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서 마치 아이티에 지진이 난후에 야전 병원 같이 천막에다 많은 환자를 수용했던 기억이 난다. 가끔 헬리콥터에 실려서 병원 뜰에 내리는 중환자를 받으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이 후송되어 오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매일 병원에 있는 Chapel에서 의사, 간호사 및 환자들 보호자들이 모여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의사들은 conference room에서 지난밤 당직을 맡았던 레지던트가 보고를 하거나, Mortality Case Review, Tumor Case Presentation 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수련의나 전문의들이 Power Point를 사

용하여 강의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나도 미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간 강의를 하였고, 처음으로 초음파 기계를 만져보는 레지던트들을 위해 간이 Portable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나서 서로 옷을 벗고 진찰을 시도하게 하고 가르쳐주는 일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몇 시간씩 먼 거리에서 오는 외래 환자가 주로 고객들이기에, x-ray 사진을 찍으면 환자에게 사진을 주고 방사선과에는 한 장도 사진이 보관되지 않는 실정이니까, 아침에는 각 병동을 회진 하면서 그 전날 찍은 사진들을 레지던트들과 가르치는 의사들하고 같이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필요한 검사나 진찰과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는 방사선과로 돌아와서 x-ray 기사들과 초음파 기사 그리고 기사가 되려고 배우는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하루의 일과를 결정하고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준비과정을 가르쳐 주었다. 기계라고는 미국에서 그 흔한 조영술 (Fluoroscopy)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그냥 위에서 찍는 오래된 x-ray 기계 하나뿐이므로, 모든 시술을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세워서 짐작으로 사진을 찍는 오래된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있는 동안에 콩팥 및 방광 촬영 (IVP)은 물론 대장촬영, 위장과 식도 촬영 등도 하고 특별히 불임증으로 임신 못하는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는 사회이기에 자궁내 촬영 (Hysterosalpingogram)은 거의 하루에도 한 두 명씩 하였다.

내가 있는 동안에 마침 미국 육군 현역 소령으로 근무하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같이 와서 단기 봉사를 하는 바람에 그 친구는 같이 온 부인을 얼굴을 볼 새도 없이 밤낮으로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해야 했다. 소문이 나기도 했고 미리 광고를 했었던지, 미국에서도 보지 못했던 희귀한 선천성 질환들을 비롯해서 각종 병환의 간난아이부터 소아과 환자로 방사선과가 북비었다. 물론 단층촬영기(CT Scan)나 MRI 같은 최신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다행히 비교적 해상력이 좋은 초음파 기계 두 대가 작동을 하고 머리도 좋고 열심히 배우려는 착실한 초음파 기사들 덕분에 하루 종일 검사를 해서 의사들에게 진단 결과를 알려 주고, 수술을 받게 하고 또 수술 후에 T-Tube Cholangiogram 등이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으면서 활력 있는 하루하루의 일을 담당하였다.

저녁에 해가 지면 고요한 산속의 밤이 깊어지고 마침 만월의 달을 감상할 수 있는 며칠 동안에는 집 생각도 나고, 비가 오는 저녁에는 잠기로 수고하고 있는 의사들 집에서 저녁을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기도 했다. 목요일에는 성경공부와 기도의 시간을, 주일에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생활의 공동체를 영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번 여행은 나에게 굉장히 뜻 깊은 기회가 된 것이 그동안 15년 남짓 20여 개국을 방문하고 견문을 넓혔는데, 이제 내년 2013년 6월이면 34년을 봉직한 우리 병원에서 정식으로 은퇴를 하기로 작정했다. 물론 좀 쉬어가면서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과 아름다운 휴양지 등을 돌아보는 여행도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아직 몸이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장기로 봉사 할 수 있는 곳을 알아 보던 중, 이미 미시간에서 외과개업은 은퇴하고 지금 에티오피아에 있는 명성병원에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장현식 동문의 권고를 받아드려 내년에 장기 봉사를 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카메룬에 가있는 동안 마지막 단기봉사를 종지부도 찍는 겸, 여러 가지 장기봉사를 위한 준비기간이 되었다. 우선 외딴 곳에서 가족과 친구들 없이 외롭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 런지, 한 달에 살아가려면 얼마나 비용이 필요한지, 병이 나거나 또는 필요한 약품을 어떻게 미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등등 끝없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지를 서너 번씩 되새기면서 결정하는 좋은 기간이 되었다.



카메룬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한 분은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남아서 두 아들을 집에서 home school 하면서 가르치고 카메룬의 의사들도 마다하는 BAKA 종족이 사는 전기나 수도가 없는 밀림지방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여자 의사였다. 아들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이 복합골절을 당해서 공수되어 왔는데 미국에서 가지고 간 초코렛트를 주니 남자들이 번갯불에 콩 구어 먹는 식으로 얼른 먹고 고맙다고 했다. 다른 여자 분은 남편이 소아마비인데도 시골에서 장애자를 위한 봉사를 하는데 다섯 번째 자연 유산이 되어 왔기에 초음파로 진단을 해주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한 분은 두 시간 떨어진 곳에서 온 여자인데 오랫동안 하숙을 하면서 신세를 진 주인여자를 데리고 왔기에 사진을 찍고 폐암 말기의 진단을 내리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모슬렘교인이지만 그 환자의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같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겪은 이야기를 통해서 교인이 되시고 소천 하셨다는 이야기를 담대히 전해주었는데 미국에 온 후 그만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일 방사선과에서 일하면서 수도 없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대하면서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곳이 불탄서 영토였던 관계로 많은 사람이 불어를 사용하고, 또 270여개의 다른 부족방언을 쓰기에 서로 의견을 소통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항상 미소를 짓고 한사람씩 대하면 동양인이니까 신기해했다.

기사가 미국에서 온 방사선과 전문의라고 하면 신기해하기도 하고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병원 뒤에 있는 가파른 산길을 두 시간 정도 올라가면 병원이 위치한 수려한 경관을 음미할 수 있기에 장기로 봉사하는 의사들의 인도를 받아 매 주말에 산에 올라갔다. 하루는 산 뒤쪽에 있는 Paradise Falls 이라는 폭포를 방문하고 커다란 폭포수가 떨어지는 경치를 감상하고 사진도 찍었다. 한번은 억수로 쏟아지는 장맛비로 졸딱 비 맞은 생쥐같이 능선을 타고 산행을 하다가 벼락을 피해가면서 큰 나무 밑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하산하기도 했다. 하루는 친절한 노인 한 분이 자기 집에 꼭 들러왔다가 가라고 하면서 진흙바닥에 진흙 벽의 원주민이 사는 집안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다. 정성껏 마련해준 차 한잔을 어디서 길러온 몰로 끓였는지는 아랑곳없이 맛있게 마시고 답소를 하고 올 기회도 있었다.

주일에는 교회에 참석하여, 정말로 모든 원주민 교인들이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각종 타악기로 음악을 반주하면서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광경은 일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예배를 마친 후 앞마당에서 가난하여 헌금을 하지 못한 교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바나나, 사탕수수 대와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경매를 붙여서 제일 많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집으로 가지고 가고 대금을 교회에 헌납하는 순서도 있을 수 없는 경험이다. 하루는 같이 일하는 초음파 기사가 자기 집에 초대하여 점심을 대접 받으면서 흰 쌀밥에다 가시가 많은 생선을 찜을 해서 맛있게 먹고 배탈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돌아 올 때는 뒷마당의 바나나 한 송이를 선물로 받아 왔다. 미국에서 가지고 간 모든 입던 옷들을 챙겨서 떠나기 전에 담레로 주니 자기 몸 크기에 잘 맞는 다고 잘 입겠다고 고마워했다. 모든 기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다시 만날 날을 모르고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했다.

드디어 며칠 되지 않는 방문이 끝나고 마지막 날 예배에서 작별인사를 하게 되어 카메룬 목사님이 떠나는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다. 이제 내년이면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어 시카고 보다는 가까우니까, 앞으로 단시일 내에 CT Scanner가 도입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와 축하를 해주고 같이 판독하면서 만날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다.

수려한 산전경관을 뒤로하고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집에서 반길 가족이 그리웠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일을 하게 되면 폭포수가 뒷마당에서 보이는 병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못내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다.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모집하는 원고 내용

-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 종교적인 내용은 사양합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 아래한글, Worl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 모든 산문은 원고지는 200자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로 해 주십시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증명(documentation)과 해석학(hermeneutics)

정 정 수 (62, 펜실바니아)

자본주의 모든 경제 원리는 개인 소유권을 등기 등 모든 국가 세계기관을 통해 보장하는데 있다. 중국경제가 발달한다 해도 모든 땅은 국가 소유로 백 년 차용계약이나 족단을 안고 가는 경제고, 아프리카나 정치후진국들은 권력이 사유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부패와 불안, 불공정 특히 독재자가 자기영역을 채울 때는 문제는 더 악화된다.

우리의 지식은 매체나 교수들이 흡수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hermeneutics)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 뇌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저장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맞더라도 소수 의견에 서면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history of heresy). 지동설을 주장한 부루노는 화형,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에서 부인하고 나온 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리며 목숨은 건졌다. 진실은 한부로 말하면 위험천만한 예는 부지기수다.

의학도라 DNA Genogram, Transplanation 등 공부해 보지만 요즈음 중

국에서 사람을 납치해서 냉동차에서 장기이식 암매 시장에 수익에 파는 조직범죄소식을 접하니 소름이 끼친다.

우주본체가 궁금해서 한 때는 열을 올렸지만 아직도 중력의 본체를 파악 못하고 Peter Higgs 영국 물리학자가 몇 십 년 전에 존재를 예언한 Higgs Boson 입자를 스위스 고속 입자 충돌기에서 존재확인하고, 날마다 새 지구와 같은 위성의 존재를 알려오니 친한 친구 이름도 아롱아롱하는 요즈음 내 처지의 관심 밖으로 밀려간다.

인지세계관(epidemiological world reality map)과 존재론세계관(ontological world reality map)을 공부하며 비교종교학도 조금 해보았지만 여전히 각 종교들 간의 폭력, 문선명 교주의 엄청난 축재 화려한 생활 등에 실망하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의사 자선 사업으로 일생을 바친 엘버트 슈바이츠 박사의 저서 가운데 "사고에 대한 포기는 정신적 파산사고를 뜻한다. 국가나 단체가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한

신념을 주입하려고 할 때 자유의지로 독자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늘 살 것을 강조" 다시 말해서 제 정신 지키려고 하지만 무엇이 제 정신인지 아리송해지고 세상 사는 데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하며 제각기 틀린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제각기 다른 착각을 하고 살고, 착각을 못하면 정신위생에 해롭다고 한다.

모든 종교관들은 죽음의 세계는 불행하다. 영혼불멸을 강조하고 천국 영생의 아름다운 꿈을 설교한다. 하지만 불교 고승들은 죽음을 입적이라고 법정스님처럼 담담히 받아드린다. 서구의 한 유명한 극작가는 1-2 막에서는 인간생활의 변화무쌍, 덧없음, 비참한 사실들을 연출해 가면서 종교의 이상향인 천국, 극락의 조용함(quietism), 무변화, 영원함(eternity)을 갈망하다가 원하는 대로 천국에서 살다가 3막에서는 하루 천국에서 휴가를 받아 옛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방문했는데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 자기 가족과 친지들의 아기자기한 현실적이고 정다운 이야기를 다 엿듣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 천당으로 돌아가는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기 아쉬워하는 3막의 내용으로 대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우리 조상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조금 유식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공자님의 슬이부자이란 말도 동양 민족 수천만 명 사이에서 수천 년 동안 통속 농축되어온 지혜와 지식들을 자기가 모아 기술한 것에 불과하지 자기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10대 성인에 속하는 송산 스님, 성철 스님 이야기도 "너희들은 인식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집착하는데 인식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무엇을 찾아 훈련 단련 승화하는 것이 선불교의 영역이라고 했다. 일체 유심조라는 석존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수양이다.

일본 대 쓰나미 지진 후에 일본 우메하라 사상은 Kernal of Wheat라는 저서에서 일본이 그리스 이성철학 인간중심사상, 서양과학사상을 빨리 받아들여 원자발전, 선진 물질문명을 누렸지만 이제는 이집트의 Heli-Aqua 사상, 동양 도교 불교 선교 가르침도 배워 현대 인류세계 삼대 숙제 1) 인간과 자연의 화해, 2) 종교 간의 화해, 3) 지식과 삶의 화해를 이룩할 때라고 쓰고 있다.

의학에서는 75-80세 사이를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급격히 생리기능이 쇠퇴한다고 하더니 내 나이 75세 매일매일 그 사실을 절감하고 느끼니 고종명이 오복 중에 으뜸이라니 그 복을 기도드리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회비, 후원하신 동문

2012년 5월 31일 ~ 2013년 1월 10일

- 1948 한용현 최원로
- 1951 박준홍 최영수
- 1954 김갑근 이동식
- 1956 박상기 조동립 김신형 신명수 김익창 도상탁 유호준
- 1957 차봉회 이동성 임종일 김양호 한성택 임종식 정진록 윤 찬 강영섭 김일훈 정구영 유상환 김용진
- 1958 김해암 임영신 최정희 김백년 이동목 김시한 이운순 이종용 송세엽 김숙희 배영섭 이장섭 김순옥 이종국 김부근 이종용 이동립 김기태 박용화 이만택 박호현 신상균 최창송 김윤범 이종국 이민자 최정희 김수산 유치열 최병두
- 1959 최대한 반응균 최용천 이종수 김은섭 한달수 최혜숙 신한수 김병구 서경화 김병석 정태진 이영모 반응균 김용덕 임낙중 강재룡 이원호 한성업 나길진 이종수 이교락 방석운 강상진 최종진 김한섭
- 1960 이순환 임필순 박명근 선우문 박정우 전희근 이광준 박형순 이상일 임종원 김택경 김완주 송영조 한성수 박형순 이덕송 박정우 박병돈 조재동 우병혁 김인환 박형순 김태경 이종석 박준명 권기홍 이효빈 염극용
- 1961 최지원 고의걸 박준환 차철준 최용성 박호성 황현상 이준우 최태순 김영철 강창욱 박호성 이재두 박승균 이희경 박준환 김영기 서휘열 장성환 김예흠 이혜원 한수용 김성준 이희백 양명교 강세부 황현상 김영철 손기용 정철용 안창현 이한수 이재승 조은순 광동린 진창건 정의철 최용성
- 1962 이상원 권익현 민경환 구정물 김석식 이상무 김호균 윤홍철 정 태 이기범 김한중 박찬형 최영수 박진수 이윤길 문상규 오태요 한상호 박종건 이영웅 송영두 구정물 남성희 장병호 조명호 이석우 김한중 윤홍철 정정수 이태봉 박종승
- 1963 윤영욱 추재욱 한광수 김정일 김택수 이기환 권영조 김광섭 김주용 고영희 김태형 이범세 조환원 이능석 박세록 노인규 선종철 김현학 윤진수 김계윤 김광섭 김갑중 장인호 임춘수 정관호 마동일 조열하 김현철 신경호 신영규 권영재 이종두 이승현 김정일 장세곤 김태웅 이병준 박승균 왕규현 김형근 송용덕 강영호 고영희 김승태 윤영섭 이기환
- 1964 이웅만 이홍표 정유석 이종성 박세준 주의돈 홍준표 김태환 방 준 전희택 이종모 오유섭 김용두 김원영 이우찬 허선행 라찬국 이주영 유창남 이종성 양운택 박세준 홍선경 강창만 조성준 유 강 임대목 신두식 정유석 임병훈 윤흥기 조동준 박한영 안연승 이정은 이유찬 박성민 유광현 이광신 유효명
- 1965 임현재 지영환 황규정 장재찬 조성구 서좌일 채무원 이재진 김건언 이한승 김옥현 박수안 손광호 이범석 채도경 이정의 구경희 홍수용 이화성 한재은 전영균 이한중 정길화 백길영 윤원길 이광선
- 1966 민발식 이명희 황 철 조의열 이영일 장한교 광일성 김용재 김경세 조관상 남궁승 김은한 허서룡 김충규 이성근 최순채 한동수 한일성 조규용 김진수 김우신 김의신 조관상 최영자 정양수
- 1967 임 번 김태웅 이정화 이소희 방정화 박정일 이태석 이준식 김성철 이영균 최무용 이민우 강명식 이근웅 한영수
- 1968 유우영 고남규 서관우 차재철 황훈규 김 철 최 철 안세현 김희주 한민원 서윤석 홍광신 송창호 박정식 김영남 이건일 노영일 문광재 안광환 서진석 김주평 김경인 임공세 신규호
- 1969 변영석 임용규 이지훈 김병오 이승공 김창남 임안무 육순재 윤효운 이충호 김홍서 최종진 김병오 최종일 김중권 송용재 이용환 김재욱 엄규동 신영찬
- 1970 조정갑 박홍식 이성춘 장극기 인정길 조남현 노승국 김형달 방준재 최원일 홍종철 문성길
- 1971 노재홍 홍성진 이성길 김제홍 김창구 김성환 박동수 장문석 서정자 장 철

- 고기영 감유구 배성호 강창홍 서상헌 강태수 김효순 조세진 김일영 광승용 이원택 박진국 정인용 황동하 박상효 조병선 최영철 김유식 김 훈 이희영 오동환 최수강 이종일
- 1972 황용규 정진우 김현배 김광호 오용호 석창호 장병호 이기진 이신재 김재석 최인섭 정희현
- 1973 위장호 나두섭 김정용 박진섭 임준형 이영복 심완섭 김천일 민인기 서인석 이계석 고용규 방병기
- 1974 권철수 최태식 김웅진 이진현 권철수 김원정
- 1975 박인영 전경배 김명호 김자역
- 1976 김대중 김승관 최광휘 유영걸 김정아 한승진
- 1978 김동수 전영식
- 1980 박남훈
- 1983 심인보
- 1989 안상훈
- 2000 황필규

30th Convention Donation

이길여(57) 1,000	강신호(57) 10,000	이영모(59) 100	송영두(62) 200
임춘수(63) 100	허선행(64) 200	이홍표(64) 500	윤효운(69) 300
홍종철(70) 200	김창구(71) 300	배성호(71) 300	조세진(71) 75
이원택(71) 75	김유식(71) 100	서인석(73) 300	

General Donation

노용면(55) 500	김익창(56) 200	송세엽(58) 100	최용천(59) 10
한성업(59) 75	정태진(59) 25	한성수(60) 75	황현상(61) 100
강창욱(61) 150	이기범(62) 50	윤홍철(62) 75	최영수(62) 100
한광수(63) 200	이범세(63) 50	김계윤(63) 75	왕규현(63) 100
송용덕(63) 100	이건일(68) 100	김성철(67) 150	이승공(69) 100
윤효운(69) 75	김형달(70) 100	방준재(70) 100	강유구(71) 300
김일영(71) 10,000	조병선(71) 75	이기진(72) 100	임준형(73) 100
방병기(73) 100			

Scholarship Fund

정태진(59) 50	강상진(59) 300	이기범(62) 100	김태웅(63) 10,000
송관호(64) 10,000	서인석(73) 100	김자역(75) 500	

Charity

김신형(56) 500	최창송(58) 1,000	정태진(59) 25	강상진(59) 100
김한중(62) 125	주의돈(64) 200	라찬국(64) 100	홍선경(64) 100
이한중(65) 500	김건언(65) 100	최영자(66) 100	강창홍(71) 300
임준형(73) 100	민인기(73) 100	김용진(74) 200	김자역(75) 500

Green Project

Mrs. 박준홍(51) 200	김은섭(59) 575	이용길(62) 200	허선행(64) 100
민발식(66) 200	김주평(68) 100	변영석(69) 100	서정자(71) 75
오용호(72) 100	임준형(73) 100	서인석(73) 100	박남훈(80) 125

Member Directory Fund

- 박근수(49) 나수섭(50) 이상하(51) 노용면(55) 김신형(56) 차봉회(57) 임종원(57) 김양호(57) 정구영(57) 유상환(57) 임영신(58) 이운순(58) 송세엽(58) 김윤범(58) 김은섭(59) 최혜숙(59) 김병구(59) 정태진(59) 이교락(59) 김용덕(59) 이순환(60) 박준명(60) 박명근(60) 엄극용(60) 우병혁(60) 이종석(60) 최지원(61) 장성환(61) 황현상(61) 최태순(61) 진창건(61) 강창욱(61) 민경환(62) 윤홍철(62) 이기범(62) 이태봉(62) 김한중(62) 하상태(63) 한광수(63) 권영조(63) 김현철(63) 장세곤(63) 김태형(63) 이범세(63) 송용덕(63) 이홍표(64) 허선행(64) 양운택(64) 홍선경(64) 이한중(65) 채도경(65) 이재진(65) 이한승(65) 장한교(66) 정양수(66) 이소희(67) 한영수(67) 서진석(68) 서윤석(68) 서관우(68) 차재철(68) 변영석(69) 이용환(69) 윤효운(69) 이승공(69) 방준재(70) 이상길(71) 오동환(71) 김창구(71) 김성환(71) 김유식(71) 정진우(72) 오용호(72) 서인석(73) 임준형(73) 오인환(73) 권철수(74) 박인영(75) 김대중(76) 김승관(76) 김동수(78) 전영식(78)

제 30차 학술대회 후 이어질 Post Convention Tour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면서도 정작 미국 내 명승지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에는 정기 학술대회를 끝내고 3월 17일(일)부터 3월 22일(금)까지 5박 6일간 미 서부지역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황금관광” 으로 동문 여러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세계 제 1의 관광지 라스베가스에서 이틀을 주무시면서 옵션으로 KA(MGM) \$150, LE REVE(Wynn) \$160 두 세계적인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고 Grand Canyon,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Arhes National Park 등 3개 국립공원과 Glenn Canyon Dam이 만들어 낸 Lake powell에서의 유람선, Navajo Indian 성지인 Monurnent Valley에서의 Indian Jeep Tour 등을 체험하면서 일반 관광회사들은 엄두도 못 내는 “Classical Grand Circle Adventure” 의 알짜배기 일정으로,

추억의 환상적인 맞춤형여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사라져 가는 American Native Indian 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Navajo Indian의 성지인 Monument Valley는 물론 Hopi Indian Nation의 First Mesa, Second Mesa, 그리고 Third Mesa까지도 섭렵해보는 특별한 Theme Itinerary를 마련하였사오니, 관심있는 동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만족스러운 기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행경비는 Tip포함(단, Las Vegas의 Show만 Option으로) \$800/1인당이 되겠으며, 완벽한 여행준비에 협조해주신다는 차원에서 미리 미리 예약을 완료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선착순으로 100명 만을 모시려 합니다

예약처: (주) 삼호관광 LA 본사 3030 W. Olympic Blvd #104 Los Angeles, CA 90006

Tel: 213-427-5500 Fax: 213-427-5535 Ms. Grace Lee Email: yourgrace@hotmail.com



5박 6일 일정표

제1일 3/17 (일) 경유지: 로스앤젤레스,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 Mojave 사막의 교통의 요충지, Barstow 경유 중식 후
 - 한때, Sin City로까지 불리웠으나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물류의 중심이면서 세계 최고의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석식 후 체크인
 - 라스베가스 초호화 테마 호텔 관광 후
 **Wynn Hotel 의 LE REVE Show. 선택관광 즐기기

제2일 3/19(월) 경유지: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Sunet Crater, Wupatkin
 - 호텔 조식후 출발, Kingman, Seliman, Ash Fork, Williams 경유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Grand Canyon 도착, I-Max 영화 관람에 이어 Yavapai Point에서 Mathers Point에 이르는 0.5마일 South Rim Trail 걷기 후, East Rim의 Desert View Point에서 또 다른 모습의 그랜드 캐년 모습 조망
 - AD 1064년의 화산폭발로 화산재가 축적된 비옥한 땅에 인디언들이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주거지인 Wupatki National Monument 탐방, 그 화산폭발로 분출된 화산재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Sun Set Crater Volcano N.W. 탐방후
 - Arizona에서 가장 높은 산인 Mt. Humphrey의 남쪽 자락에 자리잡은 아리조나 제일의 휴양도시 Flagstaff 도착, 석식후 호텔 체크인

제3일 3/19 (화) 경유지: Flagstaff, 개년드 세이, 호피 인디안마을, 페이지
 - 호텔 조식후 1-40을 따라 동진, 약 2억년전쯤에 형성된 거대한 나무들의 숲이 홍수 등에 의하여 뿌리채 뽑혀 이곳에 모이게 되고, 화산폭발에 의한 화산재와 홍수에 섞여 흘러 내려온 토사들에 묻히면서, 그 세포들에 아주 미세한 광물질들이 침투되면서 만들어진, 세계에 그 유래를 찾을수 없는 거대한 화석화된 통나무들의 들판 Petrified Forest National Park 탐방 후, 서기 348년부터

1300년 사이에 Pueblo Indian들이 거주했던 아파트 양식의 주거지들과, 그 이후에 정착한 Navajo Indian들의 농경지 등을 함께 관찰해 볼수 있는, 엄청난 계곡과 절벽들의 장관이 펼쳐지 Canyon De Chelly N.M. 탐방에 이어
 - Hopi Indian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First Mesa, Second Mesa, Third Mesa, Tuba City 경유하여 Painted Desert를 거쳐 Page 도착, 석식후 호텔 체크인

제4일 3/20 (수) 경유지: 페이지, 파웰호수, 나바호 성지 모압
 - 호텔 조식 후, 1869년 John Powell 소령이 Colorado 강을 탐험하면서 통과한 지역에 Dam이 건설되면서, 그의 이름에 따라 명명된, Powell 호수가의 낭만적인 식당에서 조식후, 1시간여에 걸친 Antelope Canyon Cruise의 장도
 - Monument Valley Navajo Indian Tribal Park로 이동, Navajo Indian들이 직접 운전하는 Jeep를 타고 저들의 성지를 순례 후, Maxican Hat, Blanding, Monticello, Moab으로 이동 석식후 호텔 체크인

제5일 3/21 (목) 경유지: 모압, 캐년랜드, 라스베가스
 - 호텔 조식 후, 공원내에 300여개의 조각같은 Arches들이 그 독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세계유일의 국립공원, Arches National Park으로 이동, Park Avenue, The Windows Section, Delicate Arch, Devils Garden등 탐방
 - Canyon Land National Park의 일부인, Island Shoe Bend를 조망해 볼수있는 Dead Horse Point로 부터 Horse Shoe Bend의 장관을 조망해보고
 - 황막한 Utah의 사막을 관통하는 70번 국도를 따라 서진하다 15번 도로로 갈아탄후 남진을 계속하여 라스베가스 도착, 석식 후 휴식
 **MGM Grand Hotel의 Ka Show 선택관광 즐기기

제6일 3/22(금) 경유지: 라스베가스, 프림밸리, 바스토우, 로스앤젤레스
 - 호텔 조식후 라스베가스를 출발하여 Prim Valley의 패션 물에서 쇼핑.
 - Bastow에서 중식후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후 아쉬운 해산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